

# Style

조선일보

APRIL 2022  
vol.235



*Cartier*



# DIOR

JEWELLERY

LA ROSE DIOR COLLECTION  
Yellow gold, pink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Breguet*  
Depuis 1775



트래디션 7597



COLLECTION  
*Ladybird*



**J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블랑팡 직영부티크 -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2층(02-3213-226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02-3479-1833)  
신세계백화점 본점 B1층(02-310-5295)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 (02-3467-8426)  
공식지정판매처 - 신세계백화점 대전신세계 Art & Science 1층 지노 (042-607-8145)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2층 드로어씨클 (051-745-1350)



조선일보  
**Style**  
APRIL 2022  
NO.235

1914년 탄생해 까르띠에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사랑받고 있는 팬더 드 까르띠에. 인생적인 팬더는 까르띠에를 만나 사랑스럽거나 때로는 장난스러운 매력을 지니며, 강렬한 공정에 나지를 발전한다. 표지 속 팬더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은 옐로 골드, 였나스, 에메랄드, 그리고 총 2.55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문의 1566-7277

22



10

- 15 **HYBRID LUXE** 화려한 스트랩을 장착해 브레이슬릿으로 활용해도 손색없는 하이브리드 워치.
- 16 **PROPOSAL FOR LIFESTYLES** 쉬이 감동하지 않는 오늘날의 까다로운 소비자에게 호소력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건드리는 오감 마케팅에 공을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고있다. 오늘날 많은 브랜드들이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패키지로 제안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 18 **SPACE IN FOCUS** 요즘 서울 도심의 거리를 보면 공터나 빈 건물에 크고 작은 화랑이 들어서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여행에 대한 규제가 점차 풀리면서 '보복 소비' 효과가 '외유로 풀리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 수 없지만, 도시 풍경을 수놓은 예술 공간이 눈길을 사로잡는 건 사실이다.
- 19 **EXHIBITION IN FOCUS** 롯데갤러리가 전국 5개 롯데백화점 지점(본점, 잠실점, 동탄점, 인천터미널점, 광주점)을 무대로 하나의 공통 테마로 기획한 대규모 여성 작가 전시 <REJOICE(리조이스)>展이 눈에 띈다.
- 20 **통합, 자유, 그리고 영국 신사의 품격** 붉은 재킷, 견장에 달린 반짇고리는 낯선 단추를 보여 수트의 모태가 된 영국의 군복을 생각한다. 제국이 저물어가고 그들이 만든 전통과 옷도 역사의 무안길로 사라져버린 듯하지만 그 상징과 레토릭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영국 역사의 사건들에 주목해 양복의 변화를 알아본다.
- 21 **FINE COMPLETION** 남자의 패션 센스를 완성하는 벨트. 버클로 브랜드 아이덴티티까지 입을 수 있는 여성 가지 벨트를 소개한다.
- 22 **CATCH IT NOW** 2022 봄, 여름, 뉴룩을 완성하는 뉴잇백 컬렉션.
- 30 **DREAMS COME TRUE**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의 삶과 예술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했던 몽테뉴가 30년치 다들 부티크가 리뉴얼을 마쳤다. 크리스찬 디올의 뉴 룩과 미스 디올이 태어난 바로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CEO 피에트로 베카리에에게 들었다.
- 32 **SPRING ESSENTIALS** 캐주얼 바이브와 장채된 세련미가 공존하는 남녀 아우터웨어 셀렉션.
- 34 **BLACK OR WHITE** 언제 어디서나 매치하기 좋은 컬러, 블랙과 화이트가 주얼리로 재탄생했다.
- 35 **SPIRIT OF MARINE** 파리, 뉴욕, 시드니 등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 어디로든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특별한 여행을 선사할 브레게 마린 컬렉션의 신작, 듀얼 타임 워치 5557-미린 오리문디.
- 36 **KISSINGYOU** 새로운 컬러와 텍스처의 신상 립스틱.
- 37 **PERFECT DUO** 피부의 근본적인 힘을 재충전하고 건강한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눈가 피부를 완성해줄 뉴 아이 케어, 수블라미지 레쌍스 폼 다면탈 아이.
- 38 **EDITOR'S PICK** 순한 성분으로 피부를 다독이는 스킨케어와 싱그러운 봄의 향기!

# Style 조선일보

Issue.235 April 2022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뷰티 디렉터 | 장희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선비 분혜, 재민 리은 인세 | 타라티미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현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역사적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TOD'S KOREA INC. 02 3448 8201



TOD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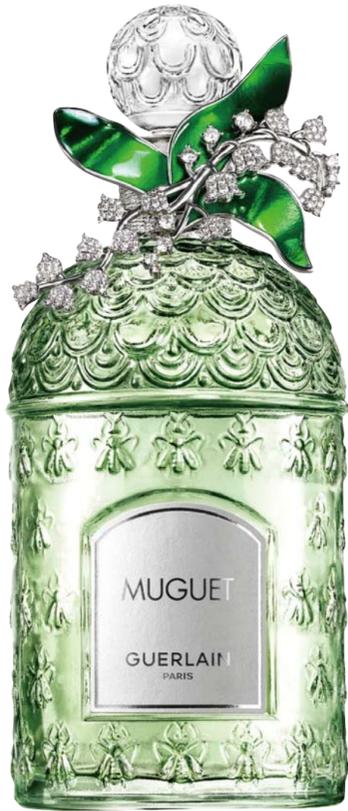


# BE JEWELLED

주얼 장식으로 눈부신 스타워킹, (왼쪽부터) 대림한 크리스탈 장식이 사선을 이끄는 비바르네 스트라스 버클 샌들 1백77만원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5-3370, 체인 디테일과 진주로 장식한 메릴릭 테크니컬 펌프 발레리나 슈즈 1백16만원 **미우미우**, 문의 02-3218-5331, 앵글 부분에 아이코닉한 체인과 주얼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플랫폼 슈즈 가격 미정 **사벨**, 문의 080-805-9628, chanel.com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유이**

# 은방울꽃의 속삭임

1908년 브랜드 창시자 자크 고틀랑이 처음으로 만든 향수 유계, 그 이후 2016년 5대 상속자 티에리 베세의 해석으로 새롭게 탄생한 유계의 향은 로즈와 재스민을 배합한 은방울꽃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았다. 이런 유계 향수에 특별한 향을 가져다주는 건 바로 2008년부터 해마다 새로운 이타스트와 함께 정인 정인으로 특별히 제작하는 보틀 디자인. 이번 2022년 에디션은 보석 공예가 프란체스코 트루첼라와 협업해 완성했다. 빛나는 크리스탈과 천연석을 조합해 은방울꽃의 화려하고 섬세한 향을 표현한 것이 특징. 전세계 5천 피스 한정 수량 제작했으며 각 제품에는 고유 번호가 각인되어 있다. 고틀랑의 역사적인 향수 유계의 이 특별한 에디션은 절망 공식 오프라인 매장에서 예약 구매할 수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대전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125ml 99만15천원대, 문의 080-343-9500



# 언제나 신선하게

스위스퍼펙션의 RS-28 셀룰라 브라이트닝 트리트먼트는 단순히 미백 애플리케이션 머물지 않는다. 주요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스코르비네이트, 그리고 셀룰라 엑티브 아이리시(8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밤페와 조기 노화의 신호를 예방하고 늦추주는 항산화 역할을 지닌다. 애플은 1병당 4일분으로 총 7병을 구성해 28일 동안 사용하도록 프로그램했다. 사용 방법에서도 뚜렷한 차별점을 보이는데, 사용 직전 흰 버튼을 눌러 위쪽에 담긴 파우더 재형이 액상 세럼과 섞이도록 흔든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덕분에 가장 신선한 상태로 배합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다. 6mlx7 67만원, 문의 1644-4490



# 착한 스니커즈

플로에에서 2022년 봄 컬렉션을 통해 새로운 스니커즈, 나미(Nami)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 스니커즈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었다는 것. 리사이클링 소재를 포함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원자재의 사용을 40%까지 끌어올려 기존 스니커즈 생산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줄이고 물 소비량은 80%까지 낮췄다. 다양한 컬러의 조합이 매력적인 뿐 아니라 길을 떠날 때 환경을 보호하는 것같은 뿌듯함까지 인거울 착한 스니커즈임에 틀림없다. 문의 02-3444-0077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아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운명적 만남

까르띠에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와 사카이 디자인이 치토세 아베가 손잡고 트리니티 사카이 치토세 아베 컬렉션 선보인다. 매종의 아이코닉한 트리니티 링의 단순미와 역동성을 해석하고 재해석해 탄생시킨 여섯 가지 제품이 컬렉션을 이룬다. 화이트, 옐로, 로즈 골드 조합으로 선보이며, 여름에 알분을 시작으로 파리, 런던, 뉴욕,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1566-7277



# SNAKE EFFECT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뱀을 모티브로 한 피아스의 주얼리.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불가리 세르펜티 세투로리 뱀 모양을 심하게 디자인한 화이트 골드 소재에 육각형 비늘 패턴을 표현한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로 장식한 눈이 돋보이는 링 1천2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다이아니 에덴 화이트 골드 다이아 브레이크릿** 18K 화이트 골드로 유려한 뱀의 모양을 형상화한 브레이크릿 1천2백만원대, 문의 02-515-1924 **스티븐 헬스터 노 리그렛 링** 뱀이 사자를 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디테일하게 형상화한 로즈 골드 소재에 블랙 다이아몬드 3,347개와 루비 3,687개를 세팅한 링 가격 미정, 문의 02-2231-1592 **부세톤 배넌 보렐 앵드 L 링** 화이트 골드 소재에 32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링으로 골 디테일을 사용해 뱀의 비늘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3천만원대, 문의 02-772-3508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상정민**



# IT'S 22 BAG

올해 새롭게 출시한 사벨의 아삭작 22 백 탄생 연도인 2022년을 상징하는 숫자에서 이름을 따온 이 백은 동시대성을 반영하는 심플하면서도 편안한 무드를 선사한다. 여성에게 움직임과 영혼의 자유를 선사하고자 했던 가브리엘 사벨의 열망에 충실한 백으로, 세련되면서도 낙낙한 내부 공간과 마그네틱 버튼, 드로스트링으로 여닫을 수 있는 실용성이 돋보인다. 내부에는 지퍼 포켓을 갖추었으며, 스냅 후크로 고정할 수 있는 탈착 가능한 피우치도 있다. 스몰, 미디엄, 라지, 세 가지 크기로 라인업을 구성했으며, 백백 버전으로 전개한다. 네이비 블루, 퍼플, 두 가지 핑크, 화이트와 블랙 컬러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chan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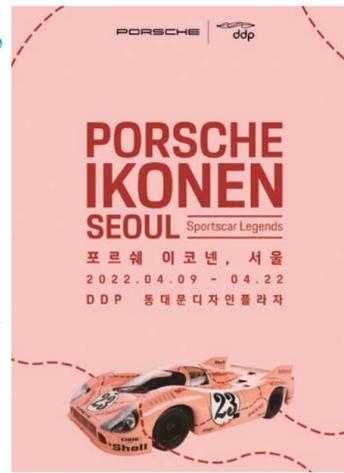


# DEEP IMPACT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불가리의 아이코닉한 워치 불가리 불가리가 클래식한 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롭게 출시된다. 세련되고 모던한 감성을 주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에 매달려 새겨진 불가리 글자가 상징적인 이 워치는 모던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갖춘 언제 어디서 어떤 룩에나 쉽게 매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세련된 칼리로 시선을 사로잡는 다이얼이 특징인데, 실버 선레이 다이얼의 멋스러움을 담은 모델과 선명하고 트렌디한 색감의 블루 다이얼, 두 가지로 출시된다. 6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 PORSCHE IKONEN, SEOUL 展

포르세 팬들을 비롯해 스포츠카의 미학을 애정하는 팬들의 마음을 살리게 할 소식이 늘어났다. 포르세코리아가 아시아 최초의 포르세 브랜드 뮤지엄 전시 (포르세 이콘, 서울(Porsche Ikonen, Seoul) - 스포츠카 레전드(Sportscar Legends))를 개최한다. 기계 미학의 전성로 통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손꼽히는 포르세의 출발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브랜드의 아이콘 같은 스포츠카 모델 총 18대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전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919 하이브리드 레이싱카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앞날 공동 주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고성능 하이퍼 콘셉트 모델 '919 스트리트'를 최초로 공개한다. 전시는 4월 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이틀 1관에서.



# GENTLE SKIN

남성을 위한 스위스퍼펙션 (왼쪽부터) **시세이도 멘 토탈 리바이탈라이저 크림** 연주름, 키크, 톤, 탄력, 리프팅 등 다섯 가지 노화 현상을 이유로써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인타이징 크림. 4주 만에 집중 케어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며 48시간 동안 지속되는 보습력을 선사한다. 50ml 9만7천원대, 문의 080-564-7700 **스위스퍼펙션 멘 나이트 리카바리 마스크** 비오르비트 유 세 요일 성분 등이 밤사이 피부를 생기고 탄탄하게 재건해주는 크림 마스크. 에센셜 타입으로 끈적임이 나뉘지 않아 촉촉하고 빠르게 스며든다. 판매를 함유해 진정 효과도 뛰어나다. 50ml 27만2천원대, 문의 1644-449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유이**





for her  
**Selection**

부드러운 소재와 파스텔컬러가 그리는 스프링 로맨틱시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전면에 로고를 더한 컬러 브로치 모두 가격 미정 사세요.

세로판티 마들라세 카브송 백, 18X12cm, 2백만원대 불가리.

핀드 퀴르에 다이아몬드를 새겨넣은 로즈 다울 프티 카블린 핑거링 미정 다울 파인 주얼리.

실크 소재 핑크 테일 스카트 가격 미정 프라다.

케이스 안에서 움직이는 다이아몬드가 상징적인 헤피 다이아몬드 워치 1천5백21만원 쇼파드.

팬티 오락이 어릴 가격 미정 펜디.

꽃을 소재로 한 귀걸이 장신구.

로즈 소재 핑크 테일 스카트 가격 미정 프라다.

세로판티 마들라세 카브송 백, 18X12cm, 2백만원대 불가리.

실크 소재 핑크 테일 스카트 가격 미정 프라다.

핀드 퀴르에 다이아몬드를 새겨넣은 로즈 다울 프티 카블린 핑거링 미정 다울 파인 주얼리.

케이스 안에서 움직이는 다이아몬드가 상징적인 헤피 다이아몬드 워치 1천5백21만원 쇼파드.

팬티 오락이 어릴 가격 미정 펜디.

꽃을 소재로 한 귀걸이 장신구.

케이스 안에서 움직이는 다이아몬드가 상징적인 헤피 다이아몬드 워치 1천5백21만원 쇼파드.

팬티 오락이 어릴 가격 미정 펜디.

로즈 소재 핑크 테일 스카트 가격 미정 프라다.

실크 소재 핑크 테일 스카트 가격 미정 프라다.

핀드 퀴르에 다이아몬드를 새겨넣은 로즈 다울 프티 카블린 핑거링 미정 다울 파인 주얼리.

세로판티 마들라세 카브송 백, 18X12cm, 2백만원대 불가리.

꽃을 소재로 한 귀걸이 장신구.

부드러운 니파 가죽으로 제작한 라베로 샌들 가격 미정 자인비토 로시.

엘토와 링크 조합이 시원스러운 에-멜 클릭 퓨전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에트베스.

마이브로 사이즈로 선보이는 엘토 레이디 다울 백, 12X10cm, 가격 미정, 다울.

천연 오간자 소재에 오렌지 컬러를 입힌 보머 재킷 1백58만원 파비어나 필라피.

라벤다 핑크 백, 32X22cm, 2백만원대 펜디.

마우미우 02-541-7443 에트베스 02-3015-3248 사블 080-805-9628 불가리 2056-0171 다울 파인 주얼리 02-3480-0104 프라다 02-3442-1830 자인비토 로시 0507-1369-3690 파비어나 필라피 02-3467-8582 자황시 02-6905-3664 실버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쇼파드 02-6905-3390 펜디 02-514-0652

# PIAGET

LIMELIGHT GALA AUTOMATIC



PIAGET E-BTQ: piaget.com/kr-ko  
TEL: 1668 - 1874



프리미엄 BO9 크로노그래프 40MM 1천만원대 브라이틀링.

키브 스킨 소재 에어팟 프로 케이스 5.2x6.5cm, 51만원 용아베.

핑크 핑크 스퀘어 프레임(팬디) 샷이 스몰(스) 52만원 팬디.

그린 코튼 테라모링 백 60x28cm, 79만원 프리다.

핑크 세트와 라벤더 카프 라더 캐리어 2백만원대 팬디.

시리얼과 같은 에디션의 하이브리드 에디션

# for him Selection

가벼운 소재와 산뜻한 컬러로 맞이하는 스프링!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스카이 블루 스웨이드 코미노 로퍼 80만원대 토즈.

인드레아이트가법이 돋보이는 3단 폴더형 지갑 7x9.5cm, 70만원 보타가 베너.

라벤더 그린 코튼 셔츠 1백40만원 발렌타노.

메시 소재 블루 벨트 가격 미정 에르메스.

로프 소재 벨트 가격 미정 에르메스.

필드 토트 40 워드호스 앤 캐리지 프론트 백 40x36.5cm, 82만원 코치.

로즈와 재스민 화이트 페퍼, 파슬리가 아우라진 실크 블루섬 코롱, 50ml, 14만3천원 조말론 런던.

루스 핏 V넥 코튼 니트 베스트 27만8천원 헤트.

다림질 테라모링 1백40만원 샷이 베너

브라이틀링 02-3448-1230 로아베 02-3479-1785 팬디 02-514-0652 프리다 02-3442-1830 발렌타노 02-543-5125 에르메스 02-3015-3248 코치 02-531-2568 조말론 런던 02-6971-3228 샷이 베너 테라모링 02-3430-7854 헤트 02-790-0798 보타가 베너 02-3438-7682 토즈 02-3448-8233

# hybrid Luxe

화려한 스트랩을 장착해 브레이슬릿으로 활용해도 손색없는 하이브리드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전부터 시계 방항으로) **파이제 라모나이트 갈라 워치** 비핵심 레그가 뛰어난 분위기를 자랑하는 18K 골드 케이스에 62개의 사이프가 다른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1.64캐럿을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 워치. 자체 제작 501P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6천 1백만원. 문의 1668-1874

**브릴리언트 아델 알함브라 워치** 스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클로버 모양의 브레이슬릿 형태로 0.9캐럿 워치로 화이트와 그레이 마다모브릴, 오피스 등 원석을 적절하게 배치해 우아함을 부여하며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1668-1906

**브라게 레인드 네이플 8928** 여왕의 시파라 불릴 정도로 극도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디자인. 18K 골드 케이스와 베젤을 감싸고, 풀사이즈에 1백39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포인트를 주었다. 디자인뿐 아니라 메카니컬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하이엔드 기술력까지 더해졌다. 8천2백만원대. 문의 02-6905-3571

**스피드 포유 컬렉션** 브랜드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출시하는 워치로 다이얼에는 총 0.48캐럿 다이아몬드 1백12개를, 브레이슬릿과 케이스, 베젤 등에는 총 347캐럿 다이아몬드 1백80개를 세팅해 볼드함과 화려함을 자랑한다. 4억9천2백20만원. 문의 02-6905-3390

**브릴리언트 아델 루방 시크릿 워치** 리본을 형상화한 심세한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에 리본 다이아몬드를 가득 세팅해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리본을 열린 다이얼이 나오는 시크릿 워치 디자인으로 재미를 주었다. 가격 미정. 문의 1668-1906

**까르띠에 맨다 주얼리 워치** 브랜드를 대표하는 맨다를 모티브로 한 벨로 향테 디자인으로 맥세라치컬 연출 가능하다. 18K 옐로 골드 케이스와 베젤에는 총 0.42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4개를 세팅했으며 브레이슬릿과 맨다 헤드 부분을 장식한 총 4.33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4백33개를 세팅해 디테일함을 보여준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부엘라리 마드리 클라시카 카프 워치** 곡선과 굴곡 없이 매끈하게 만든 리본가법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에 화이트 골드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라피스 라줄리 다이얼로 포인트를 주었다. 2천7백만원대. 문의 02-3440-5613

**브라게 레인드 네이플 8939** 핑크 이코아 진주로 장식한 화려하고 우아한 브레이슬릿이 돋보이는 주얼 워치. 베젤과 케이스에는 76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다이얼에는 42캐럿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와 최상급 마다모브릴을 매화했다. 3억3천만원대. 문의 02-6905-3571

**블기리 세르펜티 세투리** 화려한 벨의 모습을 한대적으로 재해석해 모던하게 디자인했다. 벨 비늘을 모티브로 한 브레이슬릿 부분을 화려한 골드와 장사해 반짝이는 주얼리를 착용한 듯한 효과를 준다. 블랙 레커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로 세련된 우아함을 완성한다. 3천4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에디터 송영민

# Proposal for Lifestyles

언젠가부터 패션이든 리빙이든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 매장에 가보면 근사한 카페나 레스토랑이 감초처럼 함께 들어선 풍경이 눈에 띈다. 또 상설이든 팝업이든 '본업과 별 상관없는 문화 예술 전시 공간'까지 든 브랜드의 복합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예술 공간을 꾸리더라도 '식문화의 매력'을 필수적으로 가미해야 한다. 어떤 카페를 들이냐에 따라, 또 인근에 어떤 부대시설을 갖췄느냐에 따라 모객 규모가 달라지기도 하고, '본업' 수준을 판단하는 잣대로 쓰이기도 하니가 말이다. 달리 말하자면, 미식과 예술을 둘러싼 수많은 행보는 요즘 경영 생태계에서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브랜드 경험'을 위한 것이다. 잠재적 고객까지 포함해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더 나아가 공감을 얻으려면 차별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해야 하는 책무가 지상 과제처럼 던져진다. 그리고 쉬이 감동하지 않는 오늘날의 까다로운 소비자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려면 모든 감각을 건드리는 '오감 마케팅'에 공을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자연스레 대두된다. 오늘날 많은 브랜드들이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패키지로 제안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 2명의 학자(제임스 길모어, 조지프 파인 2세)가 체험 경제 시대의 도래를 의치는 논문(1998년)을 내놓은 지도 벌써 사뭇게 정도 지났다. 케이크 원료인 밀가루, 설탕 등을 생산하다가, 산업화 이후 전문 브랜드의 케이크 믹스가 등장하고, 서비스 경제에서는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초를 곁들인 케이크 상자, 그리고 오늘 날에는 '생일 파티'라는 감동을 선사하는 이벤트 자체가 상품이 되는 경제 가치의 변화에 따라 이제 너도나도 라이프스타일 감성을 내세우는 브랜드 경험을 강조한다. 서비스는 단지 무형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체험은 추억할 만한 감정을 안겨주기 때문이고, 이는 브랜드 차별화의 관건이다. 거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된 상품 사회에서 경쟁 우위를 누리려면 남다른 경험을 선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서비스 디자인에서 다중 감각에 초점을 맞추는 체험 경제의 미학이 부각되는 현실이 펼쳐지게 된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던 것 같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가 오감을 활용해 먹고, 입고, 즐기는 일상 감성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게 된 건 무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팬데믹의 답답한 그늘에서도 신체적 자유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렸던 우리나라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콘텐츠가 붐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략적인 콘텐츠를 잇따라 선사하고 있다. 첫 행보는 체험의 미학을 풍부하게 선사하는 '공간형 콘텐츠'의 대표 주자인 멀티미디어 전시. 지난 3월 4일부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 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구찌 가든 아키타이프: 절대적 전향>,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티자 문화 예술계의 영감 넘치는 스타 기획자 알레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가 선보인 지난 6년간의 캠페인을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재해석한 전시다. 백스테이지 같은 느낌으로 전시회 곳곳을 분할된 모니터 화면으로 보여주는 '컨트롤 룸'에서 출발해 13개의 구찌 캠페인을 각각 다른 스타일로 풀어낸 방을 거니는 여정으로 꾸며져 있다(룸12로 끝난다). 복도를 가득 채운 그래픽터라든지 벽과 천장을 덮는 커다란 벽화, 클럽에서 댄서들과 한바탕 '무대'를 공유하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는 전시 공간까지, 변화무쌍한 영감의 원천을 보여준다. 전시명의 '아키타이프(archetype)'는 모든 복제품의 원형, 그 자체로 결코 재현될 수 없는 본래의 형태인 '절대적 전향'을 뜻한다. 미켈레는 온라인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전향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움이란 말과 같다고 생각하며, '창의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하며 (패션을 넘어서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 전 이미 네이비 예약 전 일정이 마감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전시는 결국 2주간 연장됐다(4월 10일까지, 무료). 구찌는 이어 지난 3월 28일 세계적인 스타 셰프 마시오 보투라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칸템페리 레스토랑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Gucci Osteria Seoul)'을 열었다. 이태원의 플래그십 매장 구찌 가족(家) 옆에 자리한 이 미식 공간은 2018년 1월 피렌체 구찌 가든 1호점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와 도쿄에 이은 4호점. 르네상스 양식과 정원을 연상시키는 초록 색감이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 듯한 이 청신한 레스토랑은 피렌체에 온 듯한 느낌을 선사하며, 풍성한 와인 목록을 자랑한다. 보투라 셰프의 시그니처 메뉴인 '에밀리아 버거'와 '파르메산 레자노 크림'을 곁들인 토르텔리니(피스타)도 맛볼 수 있다. 식기는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피렌체 브랜드 리처드 지노리가 만든 전용 제품. 정장 코스미이 아니라 단골 요리도 주문할 수 있다는 점, 점심과 저녁은 물론 이탈리아 식전주 문화 중 하나인 아페르티보(apertivo)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억해둘 만하다. 단지 당분간 예약이 녹록지 않을 듯싶다. 지난날 1차 선예약을 실시했을 당시, 4분 만에 마감됐다고.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들의 '호텔 라이프스타일 패키지' 제안**  
사실 럭셔리 브랜드들의 미식 제안은 한국에서도 낯선 마케팅은 아니다. 올 초 스위스 럭셔리 시계 브랜드 브라이틀링 역시 구찌 오스테리아와 말지 않은 이태원에 세계 최대 규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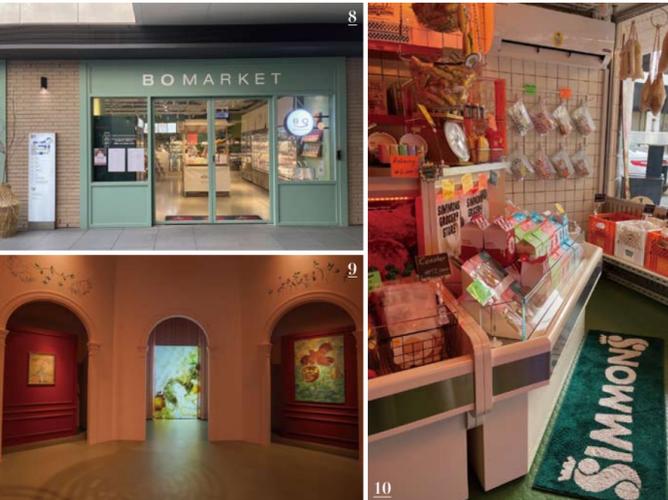
**#구찌의 통 큰 제안 이트+미식은 필수!**  
브랜드의 로망은 충성도 높고 열정적이기까지 한 단골 고객, 다시 말해 '슈퍼 팬'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다. MZ 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 구찌는 오늘날 이러한 팬덤을 즐기는 소수의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데 트렌드와 이슈에 민감한 슈퍼 팬의 사랑이 단단하고 지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브랜드는 없을 것이다. 지난해 브랜드 탄생 1백 주년을 맞이한 구찌는 올 들어 팬덤의 열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잠재적 팬들까지 사로잡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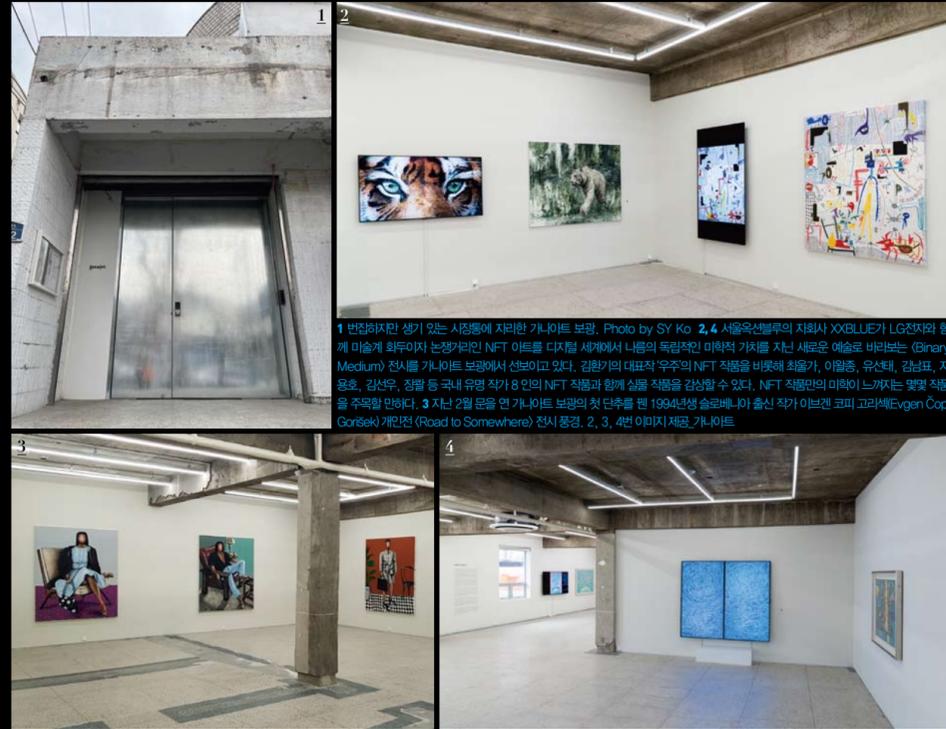
다. 청담동의 루이 비통 플래그십 매장이든 빼놓을 수 없는 미학적 복합 공간이다. 2019년 새롭게 문을 연 루이 비통 매장은 서울은 건축계 거장이자 스타인 프랭크 게리가 우리나라 전통 동래학춤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한 건축물로 4층에 현대미술 전시 공간인 에스파스 루이 비통이 자리한다. 알베르토 자코메티를 시작으로 게르하르트 리히터, 앤디 워홀 등 미술계 최고 대가들의 전시를 꾸려왔는데, 이 공간은 오는 5월에 루이비통 카페라리는 미식 공간으로 잠시 탈바꿈할 예정이다(6주 예정). 한국계 프랑스인 셰프 피에르 상 보이에(Pierre Sang Boyer)를 내세웠는데, 씬장을 파인 다이닝에 결어는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를 서울 카페를 맡을 주인공으로 선정할 것은 탁월한 선택 같다. 럭셔리 브랜드들이 존재감 넘치는 문화 예술 콘텐츠는 물론이고 '미술' 타이틀을 단 글로벌 스타 셰프와 파인 다이닝이나 명품 식기에 담은 트렌디한 카페 메뉴 등을 앞세운 미식으로 승부하지만,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결코 감각이 뒤지지 않는다. 디자인, 사진, 미술 등의 영역에서 대중적인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빚어낸 대립그룹도 '복합화'와 '예술화'된 브랜드 경험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자랑한다. 예컨대 얼마 전 서울을 인근에 다시 문을 연 디뮤지엄의 경우를 보면 건물 내에 참신한 미식 콘텐츠로 구성된 공간을 꾸리고 있기에 모객에 앞장서고 있다. 디지털계의 파인 다이닝 경험을 제안하는 '감도라든지 트렌드를 이끄는 생활 밀착형 슈퍼마켓이자 카페 '보마켓' 등이 포진하고 있는 것. 디뮤지엄의 전시 콘텐츠 자체도 이 같은 참신한 먹거리 문화를 선호하는 '타깃층'을 비슷하게 겨냥하고 있음이 뚜렷해 보인다. 성수로 이전해 첫선을 보이는 기획전 역시 1990년대와 2000년대 눈부시게 빛을 발했던 순정 만화를 모티브로 삼은 젊은 감성의 로맨스를 다룬다.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는데, 토마호크 스테이크와 생면 파스타 등을 파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브라이틀링 키친'을 함께 선보였고, 또 다른 시계 브랜드 IWC는 지난해 여름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5층에 카페 '빅파일럿 버블'을 개장했다. 청담동 명품 거리로 넘어오면 미식과 아트를 엮은 라이프스타일 패키지 제안을 흔히 볼 수 있다(차별화는 그래서 결코 쉽지 않다). 다음의 플래그십 매장에는 마카롱 장인 '피에르 에르메'의 디저트도 유명한 카페 '디올'이 들어와 있고, 에르메스 도산 플래그십 매장 건물 내에는 지하에서 카페 마당을 다년간 운영해 왔는데, 바로 옆에는 에르메스 재단의 전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아틀리에 에르메스'가 있

1, 2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지난 6년간 진행한 캠페인을 미학적 요소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멀티미디어 전시로 풀어낸 <구찌 가든 아키타이프: 절대적 전향>. 오는 4월 1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 뮤지엄에서 개최된다. 3 지난 3월 28일 서울 이태원에 문을 연 칸템페리 레스토랑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Gucci Osteria Seoul)'. <https://gucciosteria.com/kv> 4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 메뉴 '서울 가든(Soul Garden)'. 5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 메뉴인 '아PERTIVO' 부수(피스타) 3~5 이미지 제공. 구찌 6 현대 건축의 거장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루이 비통 매장을 소개. 오는 5월 프랑스의 유명 셰프 피에르 상 보이에(Pierre Sang Boyer)가 꾸리는 팝업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지 제공. 루이 비통 7 지난해 4년여만에 기획전을 다시 열며 재탄생 공간을 선보인 라옴미술관의 라옴지. 시각예술가 김용관 이 설계한 공간이다. 8 서울 성수동으로 이전한 디뮤지엄이 들어선 대림 아크로서울파크스테이에는 '잇템'인 트렌디한 생활 밀착형 슈퍼마켓이자 로컬 판집을 보마켓. 9 서울을 인근에 다시 문을 연 디뮤지엄의 이전 첫 전시(아파트, 사랑: Romantic Days) 전시 풍경. 신원섭 등 순정 만화 거장 7인의 스토리를 모티브로 로맨스를 예찬한다. 이미지 제공. 디뮤지엄 10 명 디자이너가 비범을 사랑하는 예술 콘텐츠의 버거 브랜드. '개황' 제안을 선사하는 각종 상품 등 흥미로운 감성의 라이프스타일 패키지 제안을 선보이는 팝업 스토어 시몬스 크로스타이 스트어형 당. 11 카미온이 애라 '스콘' 맛집으로 '갯방'이 매장이 행개는 롯데뮤지엄의 아트 스텝 풍경. 지금 진행 중인 미국 작가 알렉스 프라카의 전시 콘셉트로 꾸며져 있다. 12 패션, 디자인, 사진, 미술 등 라이프스타일을 패키지로 내세운 '원조' 복합매장은 밀라노의 10 코르소 고도. 현재 청담동에 있는 10 코르소 고도 서울에서는 오픈 14주년 기념으로 디자인&건축 거장 자노 폰테(Gio Ponti)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5월 1일까지). 이미지 제공. 10 코르소 고도 \* 1, 2, 7, 8, 10, 11번 이미지 Photo by SY KO



요즘 서울 도심의 거리를 보면 공터나 빈 건물에 크고 작은 화랑(畫廊)이 들어서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미술품에 지갑을 여는 문화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미술품 수집이 가능한 여력이 생기는 경제적 수준이라고 여겨지는데, MZ 세대가 주도하는 '아트 테크' 열풍까지 불고 있는 만큼 당당한 '자본'의 흐름일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시대에 상대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게 된 서울 아닌가. 여행에 대한 규제가 점차 풀리면서 '보복 소비' 효과가 '외유로 흘러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 수 없지만, 도시 풍경을 수놓은 '예술 공간'이 눈길을 사로잡는 건 사실이다.



1 번잡하지만 생기 있는 시공간에 자리한 가나아트 보광. Photo by SY Ko 2, 4 서울옥션빌라의 지회사 XXBLU가 LG전자의 함께 미술계 최두이자 논쟁거리인 NFT 아트를 디지털 세계에서 나름의 독립적인 미학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예술로 바라보는 (Binary Medium) 전시를 가나아트 보광에서 선보이고 있다. 김환기의 대표작 '우주의 NFT 작품'을 비롯해 최용기, 이원중, 유상태, 김남표, 지용호, 김선우, 장필 등 국내 유명 작가 8인의 NFT 작품과 함께 실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NFT 작품만의 미학이 느껴지는 몇몇 작품을 주목할 만하다. 3 지난 2월 문을 연 가나아트 보광의 첫 단추를 꿰 1994년생 슬로베니아 출신 작가 이브겐 코피 고라섹(Evgen Copic Goršek) 개인전 (Road to Somewhere) 전시 풍경. 2, 3, 4번 이미지 제공 가나아트

# 가나아트 보광

오래된 시장통의 '합한' 갤러리

주소를 찢고 갔음에도 잠시 해왔던 서울 보광동 재개발 지역 한복판에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알린 가나아트 보광을 찾아가 본 상당수 사람들의 반응이다. 도시 재생과 더불어 예기 못한 공간에 터를 잡은 예술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딱딱이 집과 딱딱이 낡은 가게가 즐비한 오래되고 번잡한 시장통에 딱히 눈에 띄는 카운터도 내걸지 않고 조용히 자리 한 국내 주요 갤러리 브랜드의 실험적인 현대미술 공간이라니, 물론 진통한다는 평을 들을 만하다. 노출 콘크리트와 큼직한 기둥들 사이로 새롭게 칠한 흰 벽의 미니멀한 조화, 천장에 직선으로 나열된 LED등과 숨을 트워주는 듯한 채광창 등 깔끔 하지만 전형적인 갤러리의 '화이트 큐브' 느낌이 나지 않는 내부 공간도 매력적이다. 가나아트는 지난 2018년 가나아트 시운 조에 이어 2020년 북한 매장 고메이 494 한화에 문을 연 가나아트 인라인, 그리고 지난 2월 가나아트 보광까지 선보이며 한 남 아트 벨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중 가나아트 보광은 회화만이 아니라 조각, 설치, 미디어 아트 등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젊고 개성 넘치는 작가들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목표로 한 만큼 일단 '합한' 장소 선정과 공간 연출이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단지 문화 소비만 가능한 게 아니라 문화 향유자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고, '개발'보다는 '공존'의 느낌이 어린 도시 재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듯 보여진다. 1, 2층의 공간을 시원하게 채우는 전시 콘텐츠도 신선한 편이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젊은 작가로 독특한 표현 기법이 돋보이는 이브겐 코피 고라섹(Evgen Copic Goršek)의 아시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현재는 김환기, 김남표, 지용호, 장필, 김선우 등 작가 8명의 실물 작품과 요즘 화두인 NFT 아트를 나란히 소개하는 (Binary Medium)을 개최 중이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42 한화 전시 (Binary Medium) 전시 기간 4월 10일까지 홈페이지 ganeart.com



# 탕 컨템포러리 아트 서울 스페이스 청담동의 '뉴 페이스'

아시아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가치를 내세운 대형 갤러리 탕 컨템포러리 아트가 서울 청담동에 공간을 마련했다. 동시대 미술계에서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반체제 작가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에서도 대규모 개인전을 진행 중인 아이웨이웨이(Ai Weiwei)가 소속된 갤러리로도 유명한데, 세계 유수의 아트 페어와 비엔날레에 적극 참가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탕 아트 재단도 운영하고 있다. 송은아트스페이스 건물의 넓은 지하 공간(약 495㎡, 1백50평을 활용해 매 구는 작품을 소화할 여건을 갖춘 탕 컨템포러리 서울은 첫 전시 작가로 제2의 아이웨이웨이로 일컬어지는 자오자오(Zhao Zhao)를 택했다. 중국 신장 출신인 작가가 중화국 때부터 기를 연화 수확 농도를 다년간 했던 개인적 기억을 역발의 문명과 인권이라는 역사적 주제로 확장한 'Cotton' 시리즈를 포함해 흥분을 맞아 깨진 유리판에 방사형 별 하늘 패턴이 인상적인, 체제의 억압을 비판하는 작업인 'Slarry Sky'와 그 이후 이 같은 은유적 메시지를 유희와 자수로 재해석한 작품 등 자오자오의 대표작과 신작 3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다음 전시 작가는 부산시립미술관 전시에 초대되기도 했던 중국 현대미술가 주진시(Zhu Jinshi). 탕 컨템포러리는 서울 진출과 더불어 우국원, 전광영 같은 한국 작가들을 전속으로 맞이하며 주목받고 있다고 하다. 한국 지사를 이끄는 박현진 디렉터는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주 초점은 이들 작가의 해외 활동이라고.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75길 6 송은아트스페이스 지하 2층 현재 전시 자오자오 개인전 (평행성/Paralle Affinity) 전시 기간 4월 16일까지 홈페이지 tangcontemporary.com

1 1997년 병풍을 시작으로 베이징, 홍콩에 이어 지난 3월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탕 컨템포러리 아트(Tang Contemporary Art). 아시아 최대 규모를誇る 현대미술 갤러리. 개인전으로 중국 신장 출신의 작가 제2의 아이웨이웨이(라 일컬어지는 자오자오(Zhao Zhao)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신장의 목화를 주제로 해 인민 문화를 주제로 한 'Slarry Sky'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Photo by SY Ko 2 중국 정부에 맞서는 반체제적 메시지와 개인적 자유 의지를 주장하는 작품을 주로 해 온 자오자오는 2020년 루이비통의 아티퍼미션 프로젝트의 협업 작가로 선정되기도 하고 최근 상하이 미술관에서의 전시로 평과 대중의 호평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Photo from 탕 컨템포러리 아트



# 리만머먼 서울

한남동으로 옮긴 전시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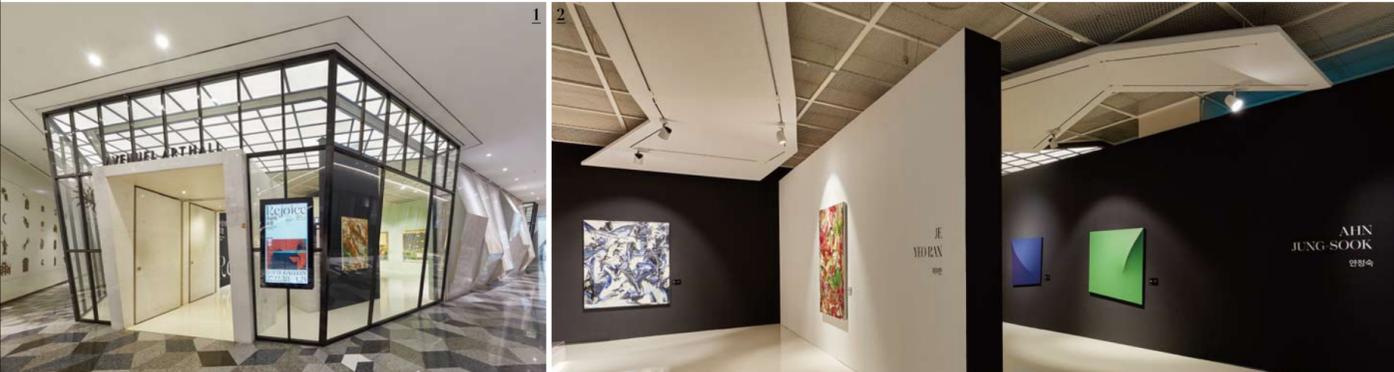
미국 뉴욕을 거점으로 한 탄탄한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세계로 확장하고 있는 갤러리 리만머먼이 서울에서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 새 출발을 알렸다. 안국동에서 작지만 운치 있는 공간을 꾸려온 리만머먼 서울은 지난 3월 15일 이태원역 근처에 1, 2층 공간과 야외 테라스를 갖춘 새 보금자리의 문을 활짝 열었다. 안국동 갤러리는 한국 작가 이불의 손길이 직접 닿은 인테리어가 어린 공간이라 아쉬움도 남지만 이태원 새 공간은 한층 넓어졌기(약 231㎡, 70평) 보다 규모 있고 다양한 방식의 전시가 가능해졌다는 이점이 있다. 건축 사무소 예스오에이(Yeso)가 레노베이션 작업을 맡은 새 갤러리 공간의 첫 전시를 위한 주인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래리 피트먼(Larry Pittman). <불투명한, 반투명한, 빛나는(Opaque, Translucent and Luminous)>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이다. 언뜻 봐도 몹시 정교한 '알(egg)' 같은 상징적 요소와 대체로운 색조, 다양한 관점이 캔버스를 가득 메운 피트먼의 회화 작품은 육안으로 봤을 때의 시각적 미학이 단연 돋보이는데, 글을 먼저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믿고 싶고, 조소도 없이 하는 섬세한 작업의 완성도와 구조미가 경탄스럽다. 신작을 내세운 이번 전시의 주제는 대도시에 대한 옹호라고 한다. 동시대적으로 펼쳐지는 갖가지 사가 존재하는 도시의 복잡다단한 모습을 반영한 셈인데, 결코 디스토피아적이지 않고 낙관적인 시선을 품고 있다. 불투명함과 불명등이 지배해왔고, 더구나 팬데믹의 여파로 도시의 일상생활은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대도시가 지닌 활력과 역동성을 담아내려는 작가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글 고성연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13 한화 전시 래리 피트먼, (불투명한, 반투명한, 빛나는(Opaque, Translucent and Luminous)) 전시 기간 5월 7일까지 홈페이지 lehmannmaupin.com

1 서울 안국동에서 이태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리만머먼 서울이 들어선 건물 내부. Courtesy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Photo Sonrangi 2 건축 사무소 예스오에이(Yeso)가 레노베이션 작업을 맡아, 1, 2층 공간과 작은 야외 테라스를 갖춘 공간을 꾸렸다. 재개관전의 주인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래리 피트먼(Larry Pittman). 사진 속 작품은 Luminous: Cries with Egg Monuments 3(2022), 243.8 x 203.2cm Photo by SY Ko 3 래리 피트먼의 <불투명한, 반투명한, 빛나는(Opaque, Translucent and Luminous)> 전시에서는 대도시에 대한 옹호를 주제로 한 신작들을 선보이고 있다. Courtesy Lehmann Maupin



롯데갤러리가 전국 5개 롯데백화점 지점(본점, 잠실점, 동탄점, 인천터미널점, 광주점)을 무대로 하나의 공통 테마로 기획한 대규모 여성 작가 전시 <REJOICE(리조이스)>展이 눈에 띈다. 꿈, 감각, 도전 등 삶의 환희는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Rejoice'라는 단어로 묶었다. 갤러리와 아트월까지 포함하면 총 8개의 연계 테마 전시를 아우르면서 국내 여성 작가 40여 명의 작품 3백70여 점을 선보이는데, 이 정도면 갤러리 단위로로는 역대급 규모다. 그저 '여성'이라는 일차원적인 교집합을 내세운 게 아니라 다각적인 전시별 주제 아래 풍부한 콘텐츠를 내놓았다.



미술과 여성, 그 빛나는 이름들 Rej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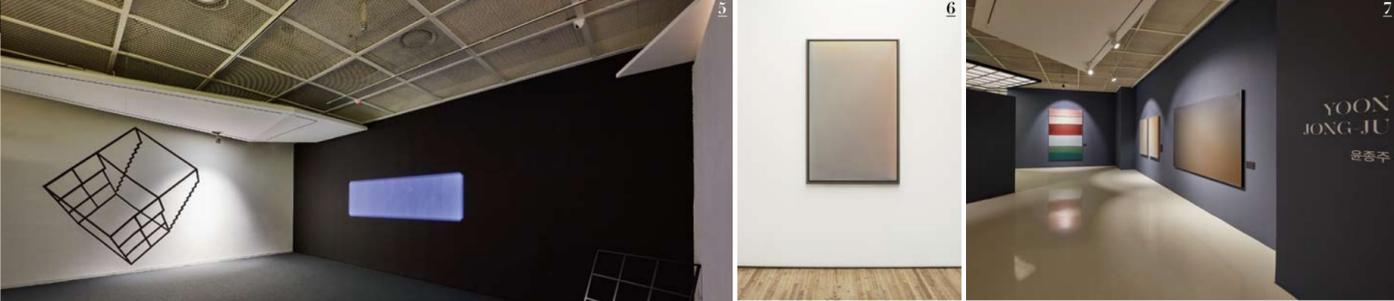
오늘날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간판'으로 내거는 아티스트들의 이름을 쓱 훑어보노라면 적어도 '성별'이나 '성비가 크게 거슬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 듯하다. 그래서 1971년에 나온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의 유명한 논문 '왜 위대한 여성 예술가는 없었는가?'라는 제목은 반세기 가 넘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기념비적인 저작물이긴 해도 더 이상 시의성이 크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위대한'이라는 형용사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단어가 아닐까 싶다. 물론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부로 붙일 게 아니지만, 어쩐지 여성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는 더 인색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그런 고정관념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고 있지는 않을까, 한 번쯤 진중히 생각해보려 여지는 있다. 여성, 남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시대지만,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지구촌 곳곳에서 열린 행사 퍼레이드 소식을 접하면서 '무감각하게 지나치기 쉬운 '위대한' 그녀들의 존재가 분명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롯데갤러리의 대규모 여성 작가 전시 <REJOICE(리조이스)>展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티스트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꿈, 지성, 감성, 감각, 즐거움, 도전, 인내, 행복 등 '리조이스'에 대한 여덟 가지 해석을 보여주는 만큼 다채로운 콘텐츠를 뽑낸다. 예컨대 자수의 맥을 잇고 현대적인 위상을 부여하는 여성 작가들을 조명하기도 하고(광주

점 (자수일상)), 여성이 지닌 각양각색의 페르소나를 표현하기도(동탄점 (Be You)) 한다. 본점의 아트월을 각기 다른 매력으로 수놓고 있는 니키 드 생팔과 정희승의 개인전 <Bulletproof!>와 <Still Life>도 놓치기에 아까운 전시다. 여성 추상미술의 얼굴들 <REJOICE: 추상의 표정>展 여러 지점에 걸쳐 펼쳐지는 롯데갤러리의 팔색조 전시는 저마다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잠실점 에비뉴엘 아트홀에서 진행 중인 <추상의 표정>展은 아무래도 무게감 차원에서 인상이 깊다.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추상'은 오랫동안 남성이 주도하는 영역처럼 다뤄져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빼어난 스타일로 자가를 추상을 해온 작가지만 89세에 이르러서야 명성을 얻은 카르네 헤레라는 '쿠바 출신+여성'이 아니었다면 더 일찍 알려지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을 자아낸 유명한 사례다. 지난해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마치 이런 해석함을 달래듯 <Women in Abstraction>이라는 대규모 전시를 열기도 했다. 이번 롯데갤러리의 <추상의 표정>展에는 박정혜, 제여란, 안정숙, 윤종주, 홍승혜 등 저마다 예술 세계를 공고히 쌓으며 추상의 길을 걸은 5인의 작가를 소개한다.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단색화> 전시에 참여했던 유일한 여성 작가인 안정숙, 붓이 아니라 실크스킨인 관화를 제작할 때 쓰는 고무 막대기 '스퀴즈'를 도구로 활용한 회화 작업을 30여 년간 구축해온 제여란, 디지털 도구를 적극



활용해 영상, 설치, 연극 등 '유기적 기하학'의 세계를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시켜온 홍승혜, 자연이 품고 있는 미묘한 색의 변화를 '미디엄'이라는 재료를 수없이 붓고 밀리는 과정으로 캔버스에 담아내는 윤종주,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현재의 풍경이 지닌 속성을 잡아내 퍼즐처럼 재배치하는 그림을 그리는 박정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글 고성연

1 롯데갤러리에서 서울 '리조이스(Rejoice)'는 하나의 공통 테마 아래 5개 지점에 걸쳐 다양한 소주제로 펼쳐는 여성 작가 기획전 (REJOICE(리조이스))展. 국내 여성 작가 40여 명의 작품 3백70여 점을 선보이는, 갤러리 단위로로는 역대급 규모의 기획전이다. 그중 <추상의 표정>展은 롯데백화점 잠실점 에비뉴엘 아트홀(6층)에서 4월 24일까지 열린다. 2 오랫동안 남성 주도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온 추상의 세계를 꾸준히 탐구하는 여성 작가들 한자리에 모은 <추상의 표정>展.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란의 여파가 다가오는 시기에 재해석된 색채와 캔버스 가장자리를 구성하는 직선과 중단을 가로지르는 곡선이 빛아는 불투명한 눈길을 끄는 인상적(오른쪽)의 작품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3 위상의 상에서 발전적으로 비롯되는 긴장과 갈등을 화해시키는 데 관심을 두었다는 안정숙 작가의 작품. 4 <추상의 표정>展 참여 작가 중 '박정혜'는 '공간'이라는 용어를 자신의 순환 구조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도 설명했다. 5 사리의 그리드를 조합·반복·변형해 새로운 이미지로 응시자(유기)가 유기적인 움직임 기하는 직접 세계로 국내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홍승혜의 기하학적 모티브가 돋보이는 설치 작품. 6, 7 2022년 영감을 미묘한 색채의 미학을 품은 윤종주의 작품은 언뜻 정제된 단색화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세 위에 또 다른 색이 감겨져 통투명한 레이더 덕에 오히려 깊은 색을 머금고 있다. 이미지 제공 롯데갤러리





# 통합, 자유, 그리고 영국 신사의 품격

오전 10시 산화철 안료로 붉게 물든 대로를 거닐며, 버킹엄 궁 앞에서 왕실의 기병대는 교대식을 치르고 있다. 더 몰(The Mall), 해군성 아치에서 트라팔가르 광장으로 이어지는 큰길이다. 화려한 행사 속 기병대는 영국군을 상징하는 붉은 재복(Redcoat)을 입고 있다. 붉은 재복, 견장에 달린 번쩍거리는 낫쇠 단추를 보며 수트의 모태가 된 영국의 군복을 생각한다. 현대사회의 유니폼이 된 이 옷은 재국을 지배했던 영국인들의 철저한 설계로 전파되었음을 말이다. 재국이 저물어가며 그들이 만든 전통과 옷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버린 듯하지만 그 상징과 레토릭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영국 역사의 사건들에 주목해 양복의 변화를 알아본다.

지금으로부터 3백여 년 전인 1666년, 찰스 2세는 정식으로 요란한 유럽의 궁정복 대신 베스트와 보드코트(재킷 개입), 바저로 이루어진 단순한 스킨 피스를 영국의 복장으로 공인한다. 흑사병과 대화재, 네덜란드와의 전쟁으로 나라 인력이 아주선한 상황이었다. 재정적인 공핍과 황폐해진 국토는 영국인들로 하여금 옷차림에 진실함과 소박함의 가치를 담게 했다. 특색한 청교도는 화려한 치장보다는 단정함과 간결함을 교리로 전파하고 옷으로 표상화했다. 칙칙하고 어두운 색은 그들의 근검을 뜻한다. 수트가 짙은 갈색과 회색인 이유가 그 때문이다. 목의 깃과 소매로 살짝 보이는 흰색 셔츠는 그들의 위생과 인간관계의 유리, 진실성을 상징한다. 이 의복은 곧바로 군복과 제복에 적용되어 영국과 영국인이라는 시각적인 조형이 이때 완성된다. 양복을 공인한다는 찰스 2세의 칙령에는 복장으로서는 국민의 정신을 통합하겠다는 의의가 깔려 있다. 수트는 빅토리아 시대(1837~1901)를 거쳐 틀을 갖춰 나간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옷들은 차려 차림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두 손을 양 허벅지에 밀착하고 가슴을 내밀고 등을 꼿꼿이 때리는 자세 위에 입 하진 옷이다. 가슴은 벌어지며 웅장해지고 어깨는 뒤로 젖혀진다. 등판의 길이는 줄어들며 어깨의 활동성은 배제된다. 등은 꼿꼿해지며 가슴부터 허리까지는 선은 과감한 직선이 된다. 이 차려 차림은 빅토리아 시대의 인간 조형이었다. 차려 차림에서 자연스럽고 멋진 옷. 그것이 영국 양복이었다. 제복이라는 매뉴얼을 통해 인간 구성원을 구속하는 것이 근대이고 그 안에서 입는 옷이 군복이다. 빅토리아 시대는 영국의 체제다. 수트는 식민지와 다양한 인종과 지역적 가치를 이루는 해가 지지 않는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든 연방인과 영국인을 포용하는 하나의 근대적 국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옷은 착용자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국가와 왕에 대한 충성, 법과 질서에 대한 존경을 명령하게 되었다.

## 변화에 직면한 대영제국의 신사

군대처럼 옷에도 계급이 있다면 꼭대기에 있는 옷은 무엇일까. 영국 내에서 최상위 계층은 왕실이다. 왕족은 양복 스타일의 표준을 제시했음에도 베스트 드레서로서 또는 스타일 가이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왕관을 쓰고 싶다면 그 무기를 건네라. 그것은 옷 착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엘리자베스의 대관식에서 그의 할머니인 테크의 메리는 이런 조언을 한다. "The two Elizabeths will frequently be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But, the crown must win, must always win." 왕관이 항상 이겨야 한다. 개인으로서의 엘리자베스와 군주로서의 엘리자베스가 항상 내적 갈등을 일으킬 테지만 항상 왕관을 쓴 엘리자베스가 이겨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 존재는 개인의 자아실현보다는 항상 국가와 시대의 변명을 위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했다. 데이비드나 윌리엄이나 조지는 양복을 입으면 모두 영국 신사로 불릴 수 있었다. 그들 개인의 이름은 시대의 조형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대영제국이라는 큰 환형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은 사회의 부분으로 존재했고 양복은 이를 도왔다. 아예 런던 도심에서 본 양복 입은 신사는 오늘 에든버러에서 본 남자이며 내일 웨스트민스터홀을 돌고할 공무원이다. 개성이 다른 개인들도 수

트를 입으면 단 하나의 키워드인 젠틀맨, 즉 사회의 일원으로 귀결된다. 양복이라는 형태는 디자인과 이미지가 너무나 구태의연하게 느껴지고 변화를 거부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격동과 변화의 시대가 아닌 본질적으로 계급이 안정된 시대에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질서로 생활의 안정을 누린다면 양복은 그 시대 최선의 패션이었다. 양복은 사회의 합의와 다음 세대로의 연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간은 감성과 지성의 모직 완연이라는 일관된 포장으로 감싸는 물건이 아니다. 개인은 감정이 있고 국가가 주문하는 명령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영국 양복은 국가의 이미지를 하나의 상징인 군주로 귀결하고 통일된 이상을 제시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다양한 개성을 이루려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다. 개인의 욕구가 너무나 커서 자의를 실현하고 책임과 직무를 벗어버리고자 했던 그 시대의 또 다른 영국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들은 차려를 강요하고 매뉴얼을 덕목으로 여긴 사회의 옷을 입지 못했다. 그리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가치에 속박되기 싫어했다. 일상 동안 재식을 강요당하는 병정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새로운 옷을 위한 조형에 착수했다.

## 새로운 가치, 양복에 감정을 불어넣다

왕위에 오르기 전 영국인들의 사정을 한 몸에 받던 '이폴로', 에드워드 8세.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는 세가의 연설을 끝으로 영국 왕실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워년 시절 그는 아버지 조지 5세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감정을 중시하는 그의 생활은 국왕인 아버지와 왕실 어른들에게 잘타의 대상이 되고 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흘러간다는 것에 미분함을 느꼈다. 아버지 다음으로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왕이 되기 위해 그는 감정적으로 너무나 애민했다. 장남과 왕위 계승자로서 왕실과 국가가 끊임없이 에드워드에게 요구 해온 책무, 소위 '영국인'이라서 쓸 수 있는 왕관이 그에게는 역사적으로 무게가 되어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속 테일러에게 명령해 제복 모양을 갖추었지만 개인의 감정을 반영한 옷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제복과 군복으로 대표되는 영국 양복에 부드러운 가치를 불어넣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진 속 그는 여타 군주들과 달리 일관된 차려 차림이 아닌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의 부드러운 양복 덕택이었을까. 감정과 사랑에 충실한 에드워드 8세의 옷은 모든 기존 양복에 획일화된 제복 국민이 아닌 멋과 자유의 영국 신사라는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었다.

1960년 런던, 토미 너터(Tommy Nutter)는 원저 공과 같은 종류의 고안을 한다. 원저 공이 왕자로서 왕실과 체제에 대한 반발을 옷으로 표현했다면 이 젊은이는 젊음을 무기로 보수화된 기존 질서에 대해 양복으로 일침을 가한다. 모던직(moderns)을 주축으로 한 모즈 룩(Mod's Look)의 출현이었다. 그는 기존 영국 양복에 텐트처럼 큰 어깨와 참람처럼 뾰족한 소매를 적용했다. 바저는 통이 크고 나팔바지처럼 팔력거리 굵이 높은 구두에만 입을 수 있었다. 전통적인 양복을 뒤엎고 왜곡함으로써 기성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계급에 대한 풍자를 했다. 1960년대에 젊음의 아이콘으로 대표되는 비틀스,



앨런 존, 믹 재거가 그의 고객이었다고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그가 디자인한 옷을 애용했다. 그는 젊은 층을 테일러링 하우스로 끌어들이고 왕실과 귀족을 위해 복무하던 테일러들의 직업관을 한 명의 디자이너, 디렉터로 바꾸어놓았다. 사별로의 너터스(Nutter's)가 토미 너터의 양복을 이어나고 세계적으로는 톨 모드가 이 룩을 재해석해 수트를 만들고 있다. 영국 양복이 추구하는 전통적 개념은 시간의 통일성이며 재복을 만든 절차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 재국의 결속과 변명을 위해 설계된 옷인 셈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동기를 지닌 자들로 하여금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원저 공이 제시한 소프트 테일러링 또는 토미 너터가 고안한 모즈 룩 같은 또 다른 성격의 영국 양복은 기존 질서와 양복에 대한 반발로 탄생되었다. 모두 사회와 개인의 갈등을 절충하는 과정 속에서 꽃피운 새로운 양복의 조형이다. 양복에는 이처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장한함이라는 과정을 겪은 다양한 시대의 가치가 적절히 계승되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좇으며 무슨 옷을 입게 될까. "제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지만 영연방은 여전히 강력한 실체인 것 같다. 강 대국이라는 옷을 여전히 웅장하게 붙잡고 있는 영국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위치를 되찾을 것 같다." 전기 작가 필립 지글러(Philip Ziegler)의 말처럼 양복은 다시금 자신의 정당한 위치를 되찾을 수 있을지. 글 김동현(비스코프 테일러, 트란펄 하우스 대표, 영화 <스펜서> 의상 제작 참여)



패턴 플레이를 통한 로고 장식으로 광범하고 심오한 폭에 개성을 더해준 매력 넘치는 디자인의 벨트 91만원대 디올 맨, 문의 02-3430-0104 모던한 블랙에 F 패턴을 넣어 재치를 주고 FF 버클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벨트 74만원대 펜디, 문의 02-6305-3717

LV 로고를 패턴 형식으로 프린팅한 카프 레더 벨트에 샬버 로고 버클로 심플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한다. 40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 fine Completion

남자의 패션 센스를 완성하는 벨트, 버클로 브랜드 아이덴티티까지 입을 수 있는 여섯 가지 벨트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일관적인 버클 장식으로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으며 캐주얼한 연출을 도와준다. 139만원대 폴로 말포르맨, 문의 02-6004-0220, 매끈하고 세련된 네이비 컬러의 레더에 심플한 T 로고 버클로 포인트 룩을 연출해줄 벨트 40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2 에디터 성장민



블랙 레더에 브랜드의 상징인 삼각 로고 버클을 매치해 모던하고 유니크한 감성을 완성하는 벨트 70만원대 프라다, 문의 02-3218-5320

그린 컬러의 프린지 디테일  
핸드메이드 크로세 니트 원피스  
가격 미정 **보태가 베네타**,  
바이올렛 타일러스 미니 핸드백  
2백75만원 투즈.



# CATCH IT NOW

2022 봄, 여름, 뉴 룩을  
완성하는 뉴 잇 백 컬렉션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레드 오프숄더 드레스 9백10만원 **발렌티노**, 시그니처 상동대에 이어링 2백95만원, 차보리아트 링 28만원, 다이아터너티 골드 링 30만원, 다이아터너티 실버링 30만원, 다이아테스 브레이슬릿 2백1만원 모두 **다이오모**, 레드 컬러 세팅 케인 미니 백 가격미정 **제시**.



코트 트워드 소재 블레루,  
베스트, 믹스 피아버 소재 쇼츠,  
메탈 소재 네크리스, 화이트 로고  
후프 이어링, 쉘 스킨 소재의 미니  
플랩 백 모두 가격 미정 **사샬**.



다이아몬드 앤 러브 네크리스  
95만원 **다이오모**, 핑크 실크 소재  
재킷 4백만원대, 실크 소재 팬츠  
가격 미정, 골드 펜딩과피 스몰 백  
3백만원대, 브라운 펜딩과피  
나노 백 가격 미정 모두 **렌디**.



시그니처 상들리에 아이링 2백95만원  
다이모모, 메탈 트릴 소재의 오버사이즈  
아노락 파카, 니트 소재의 슬리브리스  
원피스, 에이드 터키이즈 컬러 풀,  
블루 스파클라드 레더 소재 슬더백,  
화이트 스파클라드 레더 소재 슬더백  
모두 가격 미정 보태가 베네다.



바진 울 소재 니트 톱, 옐로 실크  
스카트, 블랙 카프 레더 소재  
브레이슬릿, 브라운 카프 레더 소재  
클레오 백, 옐로 카프 레더 소재  
미니 클레오 백, 가죽 슬랑백 랑프스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옐로 오릭 아이링 가격 미정 렌디.



옐로 카버드 버클 플랫슈 2백14만원  
**로저 비비에**, 옐로 더블 페이스 펠트드 &  
 울 앙고라 코트, 테크니컬 테퍼드 드레스,  
 골드 파나싱 메탈 핑크 트랜스파란트  
 레진 펠스재의 Dior Tribales 아이린,  
 마스터드 옐로 캐주얼 스킨 마이크로  
 레이다 디올 백, 그린 캐주얼 스킨  
 스몰 레이다 디올 백 모두 가격 미정 **디올**.



립드 비스코스 니트 스웨터 1백48만5천원,  
 플라티드 니트 마스카트 1백48만5천원,  
 트루스트 메탈 네크리스 가격 미정 모두  
**지형시**, 메탈 이어카프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오렌지 브리드 레더 슬링백 펄프스  
 가격 미정 **프라다**, 블루 원 스타드 백  
 3백90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니**.

헤어 **경민정**  
 메이크업 **아이정**  
 모델 **Maggie**(US Agency)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사설 080-805-9628, chanel.com  
 보태가 베네타 02-3438-7601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펜디 02-514-0652  
 디올 02-3480-0104  
 프라다 02-3218-5331  
 지형시 02-546-2790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리버니  
 02-2051-4653  
 로저 비비에 02-6905-3370  
 토즈 02-3438-6008  
 다이모모 1811-4073



# Interview with\_ Pietro Beccari

# Dreams come true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의 삶과 예술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했던 몽테뉴가 30번째 디올 부티크가 리뉴얼을 마쳤다.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이 공간은 1946년 그때 그 시간을 회상하게 한다. 크리스찬 디올의 뉴 룩과 미스 디올이 태어난 바로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CEO 피에트로 베카리에게 들었다. photographed by **Adrien Dirand / Kristen Pelou / Brigitte Lacombe**

**StyleChosun(이하 S) 리뉴얼에만 2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프로젝트는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나? Pietro Beccari(이하 B) 프로젝트의 시작은 한미디로 열정이다. "브랜드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시드니 톨레다노(Sidney Toledano) 같은 상징적인 관리자가 멋지게 경영하는 이토록 특별한 하우스에 작은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자문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갤러리를 위해 나탈리 크리니에르(Nathalie Crinière)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 후 용기를 내 아르노 회장(Monsieur Arnault)을 만났다. 머릿속을 스친 강렬한 아이디어는 총 6채의 역사적인 건물을 활용한다는 것.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점을 확보하고 다른 이들이 모방할 수 없는 무언가, 파리에 자리 잡은 디올 브랜드만의 독특함을 살릴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를 만들고 싶었다. 아르노 회장과 나는 그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터 마리노(Peter Marino)와 함께 리뉴얼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S 75년 전 크리스찬 디올은 왜 '몽테뉴가 30번째'여야만 한단,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바로 이곳'이라고 했을까? 어떤 매력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 B 몽테뉴가 30번째는 디올의 스토리 그 자체다. 역사적인 건물과 구조와 새로운 부티크가 만난 30 몽테뉴는 종전 직후 브랜드를 살린 혁신적이고 대담한 무수 디올의 마지막 힘을 상징한다. 그의 열정과 공경적인 정신은 지금까지 어렵은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크리스찬 디올의 스튜디오와 그가 일했던 사무실, 그가 밖을 내다보았던 창문 같은 요소가 돋보이는 역사적인 30 몽테뉴는 부티크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S 새롭게 단장한 모든 공간이 소중하겠지만, 특히 마음에 드는, 신경을 더 많이 쓴, 꼭 구현되었으면 했던 공간은 어디인가? B 30 몽테뉴의 모든 공간이 특별하다. 곳곳이 이전에는 한 번도 선보인 적 없던 스타일로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감성을 즐기고 싶다면 모든 스폿을 방문해야 한다.**

**S 전 세계 곳곳의 매점, 부티크와 다르게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 등 특별한 것이 있나? 그렇다면 무엇인가? B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패이스트리를 즐기거나 디올 제과점(Dior Pâtisserie)이라고 적힌 케이크를 사서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무수 디올은 미식가였다. 이 외에도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재미난 것이 많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부티크 공간과 갤러리를 잇는 비밀 통로일 것이다.**

**S 레스토랑에는 어떤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천하는 메뉴가 있다면 무엇인가? B 진정성, 정통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에 따라 리뉴얼을 했다. 레스토랑에서는 무수 디올의 콕북인 (라 퀴진 쿠킹북(La Cuisine Cousu-main))의 레시피로 만든 메뉴를 만나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도 높고 혁신적이면서 현대성과 전통을 모두 간직한 프로젝트다. 바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S 각 층에 위치한 정원, 식물, 꽃의 모습도 매력적이다.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힐링 포인트이기도 한데,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달라. B 정원은 크리스찬 디올의 일생에서 한부분을 차지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 무수 디올과 디올 하우스의 DNA에 경의를 표하고자 했다.**

**S 20세기에 30 몽테뉴는 전설적인 이야기와 꿈이 펼쳐지는 장소, 삶과 예술에 대한 프랑스의 애정이 배어 있는 공간이었다. e-커머스, 메타버스,**



1

© Brigitte Lacombe Creditartwork Rose II © Isa Gerzken / VG Bild-Kunst, Bonn Courtesy the artist, David Zwirner and Galerie Daniel Buchholz, Cologne

**NFT 등 가상 세계 포션이 커지고 있는 21세기엔 어떤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인가? B 이비타와 메타버스에 관련된 많은 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나는 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대에 대해 우리의 해석을 찾아보고 동시에 메타버스에 반하는 공간도 만들고 싶었다. 아비타가 아니라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직접 보고 만지는 경험을 선사하고 레스토랑 무수 디올에서 음식을 맛보게 하고 싶다. 즉 이곳은 가상 세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미래의 럭셔리 브랜드에 꼭 필요한 요소인 셈이다. 럭셔리에는 하나의 감성이라고 나는 가상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고, 디지털로 재현해야 한다는 최소한 디올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 확실한다. 우리는 진정성이라는 힘을 지니고 있다. 럭셔리란 제품과 경험에서 느껴지는 감성이며, 이 감성은 유형의 경험으로만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방문객들이 하루 만에 디올의 세계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한곳에 모든 경험을 집중했다. 아마 현재 지금이 낙후하지 않아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지라도, 이곳 부티크와 건물을 둘러보면서 디올의 매력에 빠져 미래의 어느 날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는 이곳에서 부티크를 운영하는 재향사, 정원사, 설계자 담당 직원, 늘 디올과 함께하는 판매 직원, 갤러리 가이드, 집사, 비텐더 등 3백50명의 다양한 분을 모시고 연설을 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며, 그 목표는 이곳을 방문한 고객에게 피부에 잘 대주지 않을 디올 티투를 새는 것이다.**

**S 온라인, 언택트 쇼핑이 전세계 흐름에서 오프라인 부티크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그에 따라 디올의 오프라인 부티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B 디올은 문화가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

**의 일부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방위적 경험을 선사한다. 고객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제품이 럭셔리 감성 그 자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늘날 고객들은 멋진 스토리를 기대하고 브랜드와 그 역사 및 가치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가치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서는 디올의 취향과 음식, 그리고 박물관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30 몽테뉴 곳곳에서는 무수 디올의 발자취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이 다른 브랜드에서는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요소다. 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럭셔리의 개념을 한 발짝 넘어서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공간이다. 디올의 역사는 30 몽테뉴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다.**

**S 피터 마리노가 설계한 건축물에 폴 콕세지, 제니퍼 스티븐스, 이사 겐 초켄, 브리짓 니데르마이어, 조 폰티, 한스 올센 등의 작품과 오브제가 가득 차 있다. 각각 개성 뚜렷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모여 호모니를 만들어 낸 것 자체가 마치 오케스트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 큐레이션은 누구의 디렉팅 및 선택선인가? B 건축가 피터 마리노, 아르노 회장, 그리고 디올 팀의 협업으로 완성된 작품이다. 누구 한 명의 디렉팅과 큐레이션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S 갤러리 디올 이야기를 해보자. 디올의 히스토리를 공간으로 표현했는데, 과거 이야기들은 어떻게 구성해 디스플레이했으며,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보여줄 예정인가? B 이 갤러리는 무수 디올에 대한 경의를 담고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이곳 몽테뉴가 30번째라고 언**

급한 바이다. 이 갤러리가 바로 이 문장의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다. 모델들이 전설적인 계단을 걸어 내려와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 무수 디올이 모델의 착장을 확인하던 캐비닛과 스카피를 그렸던 사무실 등을 재현했다. 갤러리를 직접 거닐면 이를 눈으로 확인하며 무수 디올의 존재감을 더욱 또렷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티크에서 디올 몇 개만 건넌 바로 갤러리로 이어진다는 점, 정통성을 간직하면서 현대적인 부티크와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고 짜릿한 스토리텔링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두 세계는 계속 교차하고 있다. 갤러리를 방문한 모든 고객은 그의 사무실, 패션쇼 전에 그가 모델에게 옷을 입혔던 드레스 룸, 명성 높은 개간 등을 직접 관람하면서 진정성과 진심 어린 그의 정신을 느낄 수 있다. 무수 디올은 진실함과 진정성이 활짝 문을 열고 혁명을 일으키는 순간이라는 표현을 했다. 나는 이 공간이 바로 혁명 그 자체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최적의 조건에서 즐기려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방문 시대를 예약해야 한다).

**S 무수 디올이 지금 이 공간을 본다면 뭐라고 했을까? 당신을, 당신의 팀을 뭐라고 칭찬했을까? B 레스토랑과 제과점을 특별히 여겼을 것 같다. 무수 디올은 쾌활한 사람이었으니 이곳을 보고 아주 행복했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디올 제과점에서 과거를 한 박스 사서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건 아주 세련된 경험 아니까. 무수 디올이 매우 좋아했을 것이다.**

### 새롭게 탄생한 디올의 꿈

나폴레옹 1세의 아들 발레프스키 백작이 1865년 몽테뉴가 30번째에 지은 저택. 무수 디올은 1946년 12월 이곳에 디올 하우스를 설립했다. 여러 시즌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패션쇼가 열렸고 장 콕도와 마블레네 디트리히 같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와 패션 아이콘이 드나들며 오프 쿠티어링과 파리의 우아함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은 이 상징적인 장소가 오랜 시간 리뉴얼을 거쳐 디올의 지난 75년은 물론, 앞으로의 비전까지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건축가 피터 마리노는 이 공간을 설계하면서 다양한 연극이 펼쳐지는 극장 또는 세트 디자인을 구상했다고. 루이 16세 스타일의 고전주의를 연상시키는 베르사유 궁전 바닥부터

새롭게 해석한 트윌드 주자와 까나주 모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과 시대를 혼합하며 유산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루게 했다. 자연과 꽃의 조화를 보여주는 아외 정원, 부티크 곳곳을 장식한 폴 콕세지와 제니퍼 스티일캠프, 조엘 안드리아노메이리소아 등의 작품들, 그리고 한스 올센의 의자부터 조 폰티 테이블 등 디자이너의 손길로 완성한 가구 등이 완벽한 호모니를 이룬다.

###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서비스

엘랑에 집중하는 30 몽테뉴의 중심부 특별한 공간에서는 디올 프레스티지와 로드비 트리트먼트를 통한 맞춤 메이크업, 마이크로 필링, 또렷한 라인을 완성하는 마사지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심미가와 미식가를 위해 특별한 공간 두 곳도 마련했는데, 바로 프랑스식 아트 오브 리빙을 구현함과 동시에 세련되고 독창적인 음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과 화려한 장식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제과점. 섬세한 분위기와 풍성한 디자인, 그리고 감미로운 음식이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공간이다. 프랑스식 아트 오브 라이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특별한 스위트룸도 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30 몽테뉴의 모든 곳을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데, 살롱 토크에서 열리는 카테일파티와 하이 주얼리 아틀리에를 둘러보는 특별한 투어부터 하룻밤 동안 부티크에서 보낼 수 있는 프라이빗 쇼핑 이벤트까지, 꿈꿔왔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 추억과 헤리티지를 담은 갤러리 디올

부티크 옆에는 갤러리 디올(LA Galerie Dior)이 자리 잡았다. 이곳은 크리스찬 디올과 그의 뒤를 이은 이브 생 로랑, 마르크 보양, 지안프랑코 페레, 존 갈리아노, 라프 시몬스, 그



리고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의 선구적인 대답함을 엿볼 수 있는 독창적인 공간이다. 그동안 디올 하우스를 통해 선보인 다양한 실루엣과 오리지널 스케치, 아카이브 문서를 포함한 화려한 액세서리와 특별한 작품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역사적인 공간에 담긴 추억을 이어나간다. 특히 디올 하우스가 창립 초기부터 소중하게 간직해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하게 구현해낼 헤리티지를 만날 수 있다. **에디터 장미윤**

1 디올의 CEO 피에트로 베카리(Pietro Beccari). 2 로부터 오프 쿠티어링 실물로 이어지는 3층 규모의 부티크 곳곳에는 특별한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3 부티크와 연결되어 있는 문화적인 쇼케이스 갤러리 디올. 4 리뉴얼 오픈한 30 몽테뉴 디올 부티크의 모습. 5-7 루이제와 수즈, 니트웨어, 아이코닉한 액세서리, 가죽 제품, 향수, 홀더 등 고가의 동선을 고려해 색상을 내는 부티크 내부. 8 프랑스 세트 장영베르와 황제는 무수 디올 레스토랑.





생생한 컬러 그래픽이 돋보이는 캐시미어 소재 울람 울브레 버튼 카디건 3백47천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오프 화이트의 상징적인 다이아몬드 그래픽을 소매 부분에 장식했다. 가볍게 입기 좋은 울 소재 바니티 재킷 2백만원 오프 화이트, 문의 02-517-7572



그린과 시그라스, 베이지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사일 부클레 크롭트 재킷 3백32천5천원 보타가 베타, 문의 02-3438-7682



오가닉 친환경 코튼 소재로 제작했다. 클래식 디자인에 캐주얼 쿼터 디자인을 가미한 디올 8 다크 인디고 울가너 데님 재킷 3백만원 디올, 문의 02-3480-0104

# Spring Essentials

일상성과 활용도가 한층 강조된 이번 시즌, 바이커 재킷과 데님 재킷, 보머 재킷 등 자유분방한 캐주얼 아우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캐주얼 바이브와 정제된 세련미가 공존하는 남녀 아우터웨어 셀렉션.  
photographed by jeong jin young, choi ming young



가슴과 뒷면 포켓에 자카르드 패턴 리본을 매치해 상징성을 살렸다. 빈티지한 워싱이 돋보이는 오버사이즈 인디고 데님 재킷 2백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14-0652

토즈의 아이코닉한 고티노 드라이빙 슈즈의 메탈 모티브로 팔꿈치를 장식한 것이 포인트. 캔버스 코트와 카프 레더를 조합한 라이더 재킷 3백50만원 토즈, 02-3438-6008



허리 곡선을 강조하는 디트와 주름이 특징이다. 스트레이 울과 비스코스 캔버스를 조합해 선보이는 오디노 레온 블레이저 1백88만원 스포트마크, 문의 02-511-3935



빈티지 워싱 디테일을 살린 양가죽 바이커 재킷 8백85만원 프라다, 문의 02-3218-5320 에디터 이주이

(우부터 차례대로) 다이아니 디자인 골드 매트 오버랩 브레이슬릿 18K 핑크 골드 밴드 끝에 광택의 마더오브펄 장식을 매치한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의 브레이슬릿 3백99만 원대. 문의 02-515-1924

까르띠에 클러쉬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돌기가 있는 과감한 디자인을 심플하고 모던한 라인으로 풀어낸 컬렉션. 18K 핑크 골드에 블랙 오닉스를 매치해 유니크한 매력을 풍기며 룩에 포인트를 준다. 2천7백만원. 문의 1566-7277

블가리 비제몬틴 매트 블랙 세라믹 로즈 골드에 매트 블랙 세라믹을 매치해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주는 밴드 링.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블가리의 대담하고 독창적인 비전을 담았다. 2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타파니 T 스페어 링 브랜드 상징인 T 모티브에 블랙과 화이트 색상을 기복해 모던하면서도 생기 있는 무드를 풍기는 T 컬러 컬렉션 링. 18K 로즈 골드에 마더오브펄 장식을 기미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소메 오닉스 브레이슬릿 통합과 완벽함을 상징하는 동그란 원 안에 주드 라임 컬렉션의 모티브인 리본을 넣어 세련된 우아함을 완성한 브레이슬릿. 18K 로즈 골드와 블랙 오닉스의 조화가 매력적이다. 2백3만원. 문의 02-3442-3359

스티븐 웹스터 다이아몬드 케스키드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에 비케트 컷 다이아몬드와 블랙 스마일을 기하학적으로 매치해 독특함과 강렬함으로 개성 있는 룩을 연출할 네크리스 5천1백60만원. 문의 02-2231-1532

파이제 포레션 오픈 링크 브레이슬릿 화려한 모티브로 경쾌함을 표현하는 포레션 컬렉션에서 출시하는 브레이슬릿으로 2개의 카보숑 컷 화이트 킴스톤과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회전 밴드로 장식한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뽐낼 8백25만원. 문의 1668-1874 에디터 상용진

# Black or White

언제 어디서나 매치하기 좋은 컬러, 블랙과 화이트가 주얼리로 재탄생했다. 모던함과 세련미를 완성해줄 블랙 또는 화이트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Spirit of Marine

파리, 뉴욕, 시드니 등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 어디로든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특별한 여정을 선사할 브레게 마린 컬렉션의 신작, 듀얼 타임 워치 5557-마린 오라문디.

브레게의 마린 컬렉션은 남다른 유구한 전통을 지닌 해양 워치다. 아브라함-루이 브레게는 루이 18세가 집권한 프랑스 왕정 시절부터 해군의 공식 크로노미터 제작자로서 바다에서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노후와 탁월한 기술력으로 해양 워치 발전에 크게 일조했다. 실 새 없이 출렁이는 대양에서 항선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정확성은 해양 워치에서 필수 요소. 그렇기 때문에 마린 컬렉션 제작에는 고도의 과학적 지식이 바탕이 된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온 브레게 마린 컬렉션은 GMT, 투르비용, 군시차 등 다양한 컴플리케이션 모델로 라인업을 강화했고, 올해 5557-마린 오라문디가 그 명맥을 잇는다.

### 절대적 프랑스 왕정 시절부터 명맥을 이어온 탁월함

지구를 펼쳐 보인 다이얼의 모습에서 기능을 유추해볼 수 있듯, 5557-마린 오라문디 컬렉션은 즉각적인 시간 전환이 가능한 듀얼 타임 워치다. 크라운과 7시 방향에 자리한 푸셔를 간단히 조정하는 것만으로 모든 캘린더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탁월함이 특징이다. 세계에서 첫 번째 도시의 시간과 날짜를 선택한 다음 두 번째 도시를 설정하면 시계 메커니즘이 캠과 해머, 일체형 자동 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을 활용해 시

간과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 여기에 시간을 원점으로 리셋하거나 재구성하는 플래시백 기능까지 갖췄다. 세컨드 타임 존 디스플레이, 프로그래밍 및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계식 메모리 휠과 포인트 타임 낮과 밤 디스플레이가 컴플리케이션을 채운다. 직경 43.9mm 케이스에 지구 어디로든 떠날 수 있도록 세계를 담아낸 이 신비로운 워치는 밸런스 휠과 4Hz의 진동 수, 특별한 이스케이프먼트를 갖추어 정확성을 최대로 높인 칼리버 77F1에서 동력을 얻으며, 55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수심 100m 방수 기능을 지원한다.

### 완벽에 가까운 기술력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빛어낸 마스터피스

다채로운 소재 조합과 다층적인 플레이트 구조로 완성한 지름 43.9mm의 케이스는 손목 위에 전 세계를 보여준다. 골드 베이스에 수공 기교세 기법으로 완성한 파도가 대륙의 해안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어비스 블루 컬러로 단정한 선버스트 다이얼은 파도 모티브가 끝없는 왈츠를 추는 듯한 풍경을 연출한다. 여기에 사파이어 소재 플레이트에 메탈 소재로 자오선 디테일을 더했고, 새틴 브러싱 작업을 거쳐 각 대륙의 디테일을 살렸다. 메탈릭 터키즈로 경계선을 그려낸 해안선 디테일은 독특한 효과를 연출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디스플레이를 완성한다. 바깥쪽 플랜지는 다이얼의 다양한 요소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컴플리케이션을 완성하는 각 인디케이터를 살펴보면 브레게 특유



1 브레게 마린 컬렉션의 명맥을 이을 신제품, 듀얼 타임 워치 5557-마린 오라문디. 2 투명한 케이스 백으로 무브먼트를 과감하게 드러냈다. 3 로즈 골드 케이스와 러버 스트랩 조합으로 선보이는 5557-마린 오라문디 9만원대. 4 브레게 마린 크로노미터의 근간이 되는 브레게 마린 크로노미터 3196.

의 섬세한 디테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시 방향에는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으로 구현한 날짜 창을 올리고, 4시 방향에는 수공 해머링 처리로 실제 태양과 달의 모습을 재현해 신비로운 빛을 자아내는 문페이즈 창을 올렸다. 6시 방향에서는 다양한 타임 존에 해당하는 도시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창 위에 표시된 메탈 소재 맞은 현재 시간을 확인하고 싶은 장소를 가리킨다. 인덱스와 핸즈에는 야광 물질을 입혀 어두운 곳에서도 뛰어난 가독성을 발휘한다. 이 워치의 매력은 케이스 뒷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투명한 케이스 백을 통해 브리지를 장식한 코트 드 제네브 모티브와 로터 위 세심하게 작업한 패턴 등 흡착을 데 없는 무브먼트의 아름다운 움직임에 감동할 수 있다. 케이스는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 버전으로 선보이며 가죽 스트랩, 러버 스트랩 혹은 골드 브레이슬릿을 매치할 수 있다. 에디터 이주이





(위부터 차례대로) 나스 에프터글로우 립 사인 오르가즘 이면 볼과 어름을 강타할 메이크업 트렌드인 글로시한 립 연출을 도와줄 제 품, 쫄쫄한 텍스처가 부드럽게 감싸며 빈틈없고 매력적인 입술로 연출해준다. 5.5ml 3만7천원. 문의 02-6905-3747

샤넬 루주 코코 플라쉬 170 로망스 이면 S/S 컬렉션에서 새로 선보인 컬러로 땀한 토마토 레드에 사아하고 빈틈없는 텍스처가 돋보인다. 부드럽게 발라 착색한 얼굴에 없으면 마치 행명등을 켜 듯 밝고 생기 있는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6ml 4만9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YSL 뷰티 루주 볼림에 사인 크레이팅 누드 선행한 컬러와 부드럽게 녹아드는 감각적인 텍스처로 사랑받는 루주 볼림에 사인 립스틱 라인에서 새로 선보이는 컬러. 몸을 우아하게 감싸는 시어 퍼블릭과 트렌디한 세컨드-스킨 룩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해 바른 듯 안 바른 듯 자연스럽고 은밀하면서도 돋보이는 립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3.2g 4만9천원. 문의 080-835-0089

맥 러브 미 립스틱 포텐트 레팹 대담한 컬러 팔레트를 선보이는 와일드 체리 컬렉션의 립스틱으로 땀한 루크사이 컬러가 매력적이다. 몸을 상징하는 체리 블러쉬가 그려진 패키지가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3g 3만5천원. 문의 02-6971-3291

다음 루즈 다음 구썬리 립밤 #999 매트 플라워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한 플로럴 립 케어 폼뮬러로 입술 진정 효과와 24시간 보습 효과를 지닌 세미 매트 제형의 립스틱. 부드럽게 발리며 촉촉하게 마무리된다. 3.5g 4만9천원. 문의 080-342-9500

틀 포드 뷰티 로즈 사틴 매트 립 컬러 로즈 드 신 틀 포드의 개인장이 정원에서 영감을 얻은 컬러로 어느 피부 톤이나 자연스럽게 MLBB 립 메이크업을 돕는다. 벨벳 사틴 제형으로 부드럽게 발리며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3.3g 6만7천원. 문의 02-6971-3211

조르지오 아브마니 뷰티 립 파워 405 스탠 레드 입술에 부드럽고 가볍게 밀착되어 마스크에 묻어남이 적고 높은 지속력을 자랑하는 립스틱. 율령을 모양의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이 메이크업 브러시 없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듯한 립 메이크업 연출을 돕는다. 3.1g 5만3천원. 문의 080-022-3332 에디터 **성정민**

# Kissing you

따뜻한 봄을 입은 새로운 컬러와 텍스처의 신상 립스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Perfect Duo

피부의 근본적인 힘을 재건하고 건강한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눈가 피부를 완성해줄 뉴아이 케어,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 아이.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눈가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해 주름과 착색현을 개선하는 신제품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 아이 15ml 29만4천원. 피부 깊숙이 작용해 피부 밀도를 향상시키고 탄탄함을 더해주는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 40ml 63만원. 모두 **샤넬**.



확실한 효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믿을 만한 성분, 탄탄한 기술력을 통해 프리미엄 라인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진 샤넬 뷰티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수블리마지 컬렉션.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이는 있어도 단 한 번만 사용해본 이는 없다는 수블리마지 라인의 탁월함의 비밀은 바닐라 플라네톨리아 성분이었다. 마다가스카르의 그린 다이아몬드 불리는 이 성분은 샤넬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바닐라 플라네톨리아 고평타에서 추출한 워터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자가 회복 프로세스를 강화해 종합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한다. 여기에 피부 밀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솔라디고 추출물도 여성이 원하는 이상적인 스킨케어 경험을 제공한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탁월한 제품력과 그간 쌓아온 두터운 신뢰가 효과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오염 물질에 노출되

고, 늘 긴장 상태에 놓여 피로감을 느끼는 눈가 피부를 위해 샤넬은 보석 같은 성분인 바닐라 플라네톨리아와 솔라디고 성분을 주축으로 신제품 레쌍스 풍다멘탈 아이를 새롭게 선보이며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건강한 빛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눈가**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 아이는 얼굴 중 가장 섬세하고 얇은 부위인 눈가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의 핵심이 되는 바닐라 플라네톨리아와 솔라디고 성분을 주축으로 눈가 피부에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세 가지 본질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첫 번째는 눈가 피부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제공해 활력과 탄력을 불어넣는 것. 두 번째는 디크서스를 완화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듯 아름답게 빛나는 눈가를 완성할

것. 마지막으로 눈가 피부뿐만 아니라 속눈썹과 눈썹까지 아우르며 더욱 또렷한 눈매를 부여하는 것. 게다가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섬세하고 가벼운 텍스처는 사용할 때마다 기분 좋은 느낌을 전한다. 은은한 향을 지닌 포뮬러는 바르자마자 빠르게 스며들어, 번들거리지 않고 매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남긴다. 여기에 간단한 마사지를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었다. 약지를 이용한 간단한 롤링으로 눈 아래쪽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을 주어 효과가 배가된다. 이와 함께 피부의 궁극적인 힘을 강화하는 필수 에센스,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강력한 스킨케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풍부한 수분감을 지닌 포뮬러로 아이 세럼을 바른 후 다음 단계에 사용하면 피부의 근본적인 힘을 강화하고 활력을 채워 넣는 데 도움을 준다. 문의 080-805-9638, chanel.com 에디터 **이유미**

# editor's Pick

순한 성분으로 피부를 다독이는 스킨케어와 싱그러운 봄의 향기! photographed by choi ming young, jeong jin young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찌 뷰티 루즈 아 레버브 브랄 릴스틴 리미티드 에디션 25 골드 레드 구찌 뷰티 광고 속 모델들이 릴스틴을 아주 자유롭게 라프하게 비는 모습을 보면 살짝 놀라지만 의외로 자연스러운 발색에 한 번 더 놀란다. 반타타하고 레트로한 그 자체인 이쁜 리미티드 에디션 패키지는 소장 가치를 더욱 높인다. 3.5g 5만2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정영진*

**이솜 스킨케어 아로마틱 캔들** 이솜과 리오 오렌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여러 제품 중 가장 접근하기 쉬운 캔들. 세 가지 사이즈로 선보이는데, 미라와 고티를 결합한 리오 오렌스의 가구 컬렉션과 동일한 디자인 원칙을 적용한 세라믹 용기가 매력적이다. 특유의 특 소는 향을 좋아하는 개성 있는 사람들이 선물하러 신포확을 제로. 이솜 홈페이지와 가로수길, FFC를 등 매장 10곳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65g 4만9천원, 문의 1800-1987. *by 에디터 정영진*

**오아신 유·비셀 불리 불리 듀제** 시아버타와 살구 씨 오일 등 자연 유래 성분인 압출에 풍부한 보습과 영양을 부여하는데, 과학이 아닌 자연의 힘도 마음에 든다. 내부에 가을을 상징한 감각적인 불리 케이스에는 아·셀과 기호를 조화해 파스널 인레이가 빙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7g 9만5천원, 문의 1544-5114. *by 에디터 이주희*

**리뷰렛 리스토라티브 엘지 젤** 필드 필드 손도 제로로 된 관리가 필요한 시대. 물기가 있는 손에 적당량을 얹어 소금 알갱이가 녹을 때까지 마사지만 후 미온수로 헹구면 되는 핸드 필드에 눈길이 간다.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면서도 보습 효능의 엘지 추출물, 영양 공급에 좋은 시아버타 등을 함유했다. 각질과 잔잔을 제거하고 탄력감을 부여하는 데 좋다. 120g 5만6천원, 문의 1644-4490. *by 에디터 정영진*

**엘카리 코어 셸 SPF 50+ PA++++** 끈적임이나 백탁 현상이 신포확하고 가볍게 흡수되는 촉촉한 젤 타입의 선포확. 스킨케어 에센스 바로 다음 단계에서 발라 수분감을 채워주는 보습력을 자랑. 자외선에 의해 자극받은 피부에 진정 효과를 물러 기나나 주근깨를 완화하는 미백 효과까지 이룬다. 50ml 3만2천원, 문의 1588-7667. *by 에디터 이주희*

**에베다 샴푸어 나채림 샴푸** 바 자구의 달인 4월에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샴푸로 수유금 잔향이 바로 기부된다. 당연히 자구를 보호하는 비건 제품. 아비시 니아 오일을 함유해 부드러운 거품은 사용감이 특징이다. 에베다 시그니처인 카밍 아로마틱 에에 영감을 준다. 다른 샴푸 바에 비해 사용 후 후발이 부드럽고 세정력도 좋다. 100g 2만원대, 문의 02-3440-2905. *by 에디터 정영진*

**미아스킨루스 세피움® 모이스트 비블 클렌징 패드** 에디터처럼 민감한 피부의 각질 관리는 늘 고민이다. 그렇다고 각질을 썰어두기만 하면 꼭 한 번 트러블이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 이 패드는 클렌징과 동시에 부드러운 각질 제거를 도와주기만 하면 그만이다. 코 앞이나 턱 밑같이 세정할 필요가 필요한 곳은 거즈 면으로 몇 번만 속삭 문질러주면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가 된다. 8gX10 2만원, 문의 02-3670-5324. *by 에디터 정영진*

**스쿠 더 리워드 퍼포먼스 #210** 무엇보다 세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수분감 넘치는 리워드 텍스처가 인공이다. 뽕질 없이 부드럽게 퍼 빌러 피부 결을 매끄럽게 가려주고, 자연스러운 유광을 지닌 피부로 연출해준다. 클렌징과 하향루틴, 녹차 추출물 등 13가지 성분을 배합해 스킨케어 효과까지 특별히 얻을 수 있다. 30ml 1만2천원대, 문의 02-6905-3369. *by 에디터 이주희*

**바버리 바버리 허오 드 트랄렛** 한 번 분사하는 순간 작아 향이 코를 채우고 시간이 지날수록 장미 향과 우드 계열의 베이스 노트가 느껴지는 신포확하고 모던한 향이다. 제품의 향을 글로 신포확한 도상의 드로미틱한 색채, 한 어의 독특한 에·차와 꾸미지 않은 개성, 그리고 새로운 모형을 찾아 떠나는 새로운 시선을 열어 파스타로 그린 컬러로 표현했다는 말이 딱 알린다. 50ml 1만1천원대,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정영진*

**레 플루르 드 란방 워터 릴리 EDT** 올봄 사랑하고 싶거나 사랑받고 싶다면 이 향수를 강력 추천한다. 특히 워터 릴리는 낭만적인 푸르터한 향이 돋보이는데, 당장 입 안에 넣고 싶을 정도로 달콤한 것이 특징. 저음 구입하면 프랜차이즈 매장 브랜드 마다 메르디와 컬라베이션에 제작용 굿즈 티셔츠까지 한정 수량으로 만날 수 있다. 90ml 1만2천원, 문의 080-800-8809. *by 에디터 정영진*

**나스 리워드 블러쉬 에스 어빌** 블러쉬는 액상이나 크림 타입이 좋다는 한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 그나마 본인의 용도처럼 자연스럽게 피부 속부터 올라오는 듯한 표현이 가능하고, 나스의 이리드 블러쉬가 그렇다. 비로까지 수중·저렴·날아가고 자연스럽게 흡수된 속 남는 신포확. 영 조정을 좋아하는 후손들에게 더욱 추천한다. 15ml 4만2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정영진*

**마린메이 나야산아이드+오라 추출물 세럼** 민감 피부 타입이기에 민감성인 마린 메이. 하지만 이 제품은 나야산아이드 2%라는 안전한 농도를 선포확에 미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친 성분 EWG 그린 등급의 자자극으로 마백 효과를 부여한다. 끈적임 없이 신포확하게 마무리되는 수분감이 만족스럽다. 30ml 1만8천원대, 문의 031-523-9023. *by 에디터 이주희*

**타타지 두라셀 스케일링 샴푸** 자성연에도 민감한 피부 타입인 까다로운 에디터의 니즈를 충족시킨 제품. 액상 소금을 함유한 젤 타입 모올라가 부드럽게 두피를 세정해주는데, 각질과 피지뿐만 아니라 코피세 먼지까지 부드럽게 클렌징해준다. 샴푸 후에도 코도로 건조해지지 않고 촉촉함이 남는다는 점도 마음에 든다. 인공 향료 속 알러젠 유발 성분을 배제한 자연스러운 이로라 향으로 기분까지 편해준다. 500g 2만4천원, 문의 1811-9415. *by 에디터 이주희*



# SHOWROOM

## BEAUTY



**에스티 로더 마이크로 에센스 & 마이크로 에센스 프레스시** 포스트비오트 12+와 바이오·액티브 락타바실러스 발효 성분을 담아낸 마이크로 에센스.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기우어 자극을 완화하는 이중 장벽 액션을 취한다. 덕분에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피부 보연의 힘을 키우고 노화 징후로부터 보호해준다. 새롭게 선보이는 프레시 타입은 유분을 컨트롤하는 기능까지 갖춰 지성 피

## LIFESTYLE



**생사이트 어반 팩커 더블 백** 도심 속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켜줄 만큼 백이다. 스트랩을 조절해 크로스 보디, 백백, 톱 핸들 등 멀티웨이 착용이 가능하다. 재활용 페트병을 이용한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마이 크랩백 기능으로 향균과 향진력까지 갖췄다. 문의 02-2007-2943

**펜탈리곤스 포트레이트 맨션** 매종의 프레스티지 라인 포트레이트의 베스트셀러 8종을 10ml 트래블 사이즈에 담아 특별히 선보인다. 영국 로열패밀리의 럭셔리한 자택 모험 패키지가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문의 080-363-5454

**에스티 로더 마이크로 에센스 & 마이크로 에센스 프레스시** 포스트비오트 12+와 바이오·액티브 락타바실러스 발효 성분을 담아낸 마이크로 에센스.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기우어 자극을 완화하는 이중 장벽 액션을 취한다. 덕분에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피부 보연의 힘을 키우고 노화 징후로부터 보호해준다. 새롭게 선보이는 프레시 타입은 유분을 컨트롤하는 기능까지 갖춰 지성 피

**에스티 로더 마이크로 에센스 & 마이크로 에센스 프레스시** 포스트비오트 12+와 바이오·액티브 락타바실러스 발효 성분을 담아낸 마이크로 에센스.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기우어 자극을 완화하는 이중 장벽 액션을 취한다. 덕분에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피부 보연의 힘을 키우고 노화 징후로부터 보호해준다. 새롭게 선보이는 프레시 타입은 유분을 컨트롤하는 기능까지 갖춰 지성 피

**펜디 안토니오 겔스 그래픽 백** 2022 S/S 시즌 여성 컬렉션에서 안토니오 겔스 그래픽 백을 출시한다. 펜디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안토니오 로페즈의 작품에서 영감받아 다양한 아트워크 크를 선보였는데, 그중 안토니오 겔스 모티브를 펜디의 아카이브 백에 담아 존재감을 드러낸다. 문의 02-514-0652

**MCM 그래픽 스페시비 레더 크로스 보디** 글로벌 럭셔리 패션 하우스 MCM이 S/S 시즌을 맞아 톱톡 튀는 색감이 눈에 띄는 모던한 디자인의 크로스 보디 백을 선보인다. 광택감 있는 24K 도금 금속 장식의 세련된 브래드 로고로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540-1404

**말버리 소프트 컬렉션 '론 그린'** 말버리의 아카이브 백 컬렉션인 소프트 컬렉션에서 새로운 컬러, '론 그린'을 출시한다. 선명하고 트렌디한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 백 컬렉션에 새로운 그린 컬러가 등장해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말버리

**피아제 프레션 링** 1백50여 년간 계승되어온 피아제 이탈리아의 진구한 노하우가 깃들어 있는 회전 밴드 디자인의 피아제 프레션 링에서 슬라터 링을 출시한다. 아름다운 컷팅이 돋보이는 약 0.3~0.5캐럿 다이아몬드와 그 주위를 감싼 2줄의 다이아몬드 세팅 회전 밴드로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전달한다. 문의 1668-1874

**스와로브스키 프레테터 엷지 크리스탈 한정판 컬렉션**으로 아디다스와 파트너십 추진 스와로브스키에서 스포츠웨어 브랜드 아디다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매우 인상적인 디자인의 프레테터 엷지 크리스탈 컬렉션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다양한 스와로브스키 주얼리를 활용해 아디다스의 상징인 3개 선을 특별히 제작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코·엑시탈 마스터 크로노미터 41MM** 시선을 사로잡는 컬러와 디자인의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컬렉션 워터proof 플리싱 차탄한 블루 세라믹 베젤과 그랑 피 화이트 에·멜트 로라숫자, 화이트 세라믹 다이얼을 비롯해 6시 방향 날짜창을 갖추었으며 핸즈와 오메가 로고, 컨스텔레이션 스타 및 각 면 차탄한 인텍스 모두 블루 컬러로 제작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의 02-6905-3301

**빈클리프 아펠 럭키 스프링 아이링 플럼 불로섬** 빈클리프 아펠의 럭키 스프링 컬렉션은 무당방패와 플라워 모티브를 통해 매혹이 사랑하는 계절,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봄을 기념한다. 이 컬렉션의 아이링인 플럼 불로섬은 화이트 마더오르팔에 로드 골드 비즈로 장식해 우아한 매력을 더한다. 문의 1668-1906



한이 컬렉션은 4월 4일부터 일부 아디다스 매장과 아디다스 온라인 스텝을 통해 한정 수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문의 1522-9065

**말버리 불기리 불기리 워터 세일** 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랑받아온 불기리 불기리가 2022년 클래식하면서 또 한대적인 감각을 더한 모습으로 리뉴얼 론칭했다. 케이스 지름 33mm의 레이디 워터와 실버와 블루 다이얼의 41mm 사이즈 남성 워터로 전구 불기리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056-0170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코·엑시탈 마스터 크로노미터 41MM** 시선을 사로잡는 컬러와 디자인의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컬렉션 워터proof 플리싱 차탄한 블루 세라믹 베젤과 그랑 피 화이트 에·멜트 로라숫자, 화이트 세라믹 다이얼을 비롯해 6시 방향 날짜창을 갖추었으며 핸즈와 오메가 로고, 컨스텔레이션 스타 및 각 면 차탄한 인텍스 모두 블루 컬러로 제작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의 02-6905-3301

**빈클리프 아펠 럭키 스프링 아이링 플럼 불로섬** 빈클리프 아펠의 럭키 스프링 컬렉션은 무당방패와 플라워 모티브를 통해 매혹이 사랑하는 계절,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봄을 기념한다. 이 컬렉션의 아이링인 플럼 불로섬은 화이트 마더오르팔에 로드 골드 비즈로 장식해 우아한 매력을 더한다. 문의 1668-1906



## JEWEL & WATCH

## FASHION



CHANEL